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월례 워크숍 #2

2011년 3월 18일

노동자운동의 지역연대
- 경주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오세용 (전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
토론: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경과-현황-과제

오 세 용 (전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

1.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경과

① 1987년 이전 : 암흑기

시 기	내 용	비 고
86년 10월	삼도물산 노조탄압저지투쟁	80년대 유일한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 3명 구속

② 1987년(노동자대투쟁)~1996년(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출범) : 민주노조운동의 시작

시 기	내 용	비 고
87년 07월	경주지역 택시노조 파업투쟁	노동조건개선 요구내걸고 8일간 파업 · 점거농성
08월	자동차부품노조 4~5개 결성	노동자투쟁을 두려워한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노조
89년 하반기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시작**	자동차부품사업장 어용노조 민주화 : 89년 1월 경주 안강 풍산금속 공권력투입에 따른 구속 · 해고자+89년 5월 전교조 결성에 따른 해직자+89년 8월 울산 현대자동차 민주(?)집행부 출범 등의 영향
90년 01월	경주지역 최초의 지역노동조직인 '경주노동자회' 건설	한국노총과 단절한 민주노조 대표자들의 모임 : 자동차부품(6개노조)+전교조+택시(2개노조)
06월	'경주지역자동차부품협력업체노조대표자회의'로 전환	'경주노동자회'의 주요내용이 임단투에 집중됨으로 인해 비제조업과 분리(자동차부품 9개노조 2천여명)
91년 10월	'경주지역노조대표자회의'로 전환	타업종과의 결합을 위해 전환했으나 자동차부품 중심 극복 못함(자동차부품 10개노조) : 지역 부서별 모임 시작(조직쟁의/교육선전/조사통계/문화체육 등)
93년 05월	아폴로산업 공권력 투입	김영삼 정권 최초의 공권력 투입으로 전국 집중
12월	'경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아폴로산업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대표자 중심의 체계에서 대의원 구조를 갖춘 협의회 체계로 전환
95년 01월	자동차부품노조 '지역집단교섭' 추진 논의	그동안의 시기집중투쟁 한계 극복위해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이 가능한 '지역집단교섭' 추진 논의 : 대표자들 동의했으나 준비후 추진키로해 논의에 그침
96년 04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출범**	그동안의 자동차부품 10개노조 3천여명을 넘어 16개 노조 4천여명으로 출범

※ 90년대 전노협에 가입한 노조없이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출범전까지 전노협 · 전노대와 참관 · 교류

※ 90년대는 매년 4~5개 노조가 시기집중 임단투파업 돌입했으나 큰 마찰없이 3~4일만에 노조별 타결

③ 1996년(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출범)~2005년 : 정착기

시 기	내 용	비 고
96년 12월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96년 12월~97년 1월 수요총파업으로 전환전까지 10개노조 2천여명 파업 및 지역집회 등
	96년 주요투쟁	•힐튼호텔 : 58일 파업투쟁 •동아산업 : 2개월여 민주노조사수투쟁(해산)
97년	97년 주요투쟁	•금아교통 : 22일 파업투쟁 •한일 : 1년여 민주노조사수투쟁(해산)
98년 05월	자동차부품 6개노조 지역집단교섭 추진	98년 2월 금속산업연맹 출범의 영향과 IMF 한계를 함께 돌파해내기 위해 집단교섭 추진 : 11차례 교섭(사용자측 모두 불참)과 **공동파업/경고파업**/천막농성 등 진행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개별교섭으로 전환
	98년 주요투쟁	•만도기계(경주) : 정리해고 저지투쟁(4명 구속) •민주택시(경주) : 완전월급제 쟁취투쟁
99년 11월	자동차부품 노조통합 추진위 구성	자동차부품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출발해 노조통합 결의
	99년 주요투쟁	•경주교육문화회관 : 6개월여 민주노조사수투쟁
00년 04월	**'경주금속노조' 출범**	금속산업연맹 소속 8개노조 1천여명 통합노조인 '경주금속노조'(일종의 '지역산별노조' 형식) 건설
06월	경주금속노조 집단교섭 추진	2개월여에 걸친 16차례 교섭(사용자측 15차교섭부터 참석) 끝에 2001년부터 집단교섭 추진키로 합의
01년 02월	**'금속노조경주지부' 출범**	금속노조 건설에 따라 11개노조 1,600여명 금속노조 경주지부 출범 : 2000년 합의에 따라 첫 집단교섭 실시(공동요구-공동교섭-개별타결의 기형적 형태)
06월	세광공업 투쟁	위장폐업에 맞서 **금속노조경주지부 첫 연대총파업** 등 완강한 투쟁 전개(7명 구속) ※세광공업 투쟁의 여파를 경험한 경주지역 자본은 이후 탄압보다는 타협적 기조 유지해 큰 투쟁없이 진행됨.(노사타협 · 담합구조 추진)
02년	비정규사업 본격 시작	노동법률상담소 개설, 미조직특위 구성하며 경주지역에서 비정규사업 본격화
04년~05년	불법파견 투쟁	자동차부품 8개 사업장 300여명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받았으나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함
05년 06월	**'경북일반노조' 출범**	민주노총경북본부 사무처 동지들을 중심으로 건설해, 민주노총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출발

※ 2000년대 전반기는 세광공업 투쟁외에는 큰 지역투쟁없이 전국적 투쟁에 복무.(2000년 롯데호텔 · 사회보험 투쟁 → 2001년 대우자동차 투쟁 → 2002년 주5일제 투쟁 → 2003년 열사정국 투쟁 등)

※ 2001년 금속노조 출범이후 지역의 중심이었던 '금속노조경주지부'의 '지역'보다는 '산별' 중심성 강화

④ 2006년~2009년 : 성장 · 활성기

※ 2006년~2009년의 4년간은 '금속노조경주지부'와 '경북일반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으로 지역 민주노조운동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

시 기	금속노조경주지부	경북일반노조
2006년	통합산별노조 출범에 따른 '금속노조경주지부' 확대 : 기존 기업별노조중 오리엔스(100명), 에코플라스틱(430명) 산별전환 결합	•경주CC(14명) 투쟁 : 금속노조경주지부 총파업집회로 승리 •동국대학교미화(40명) 투쟁 : **지역 연대총파업으로 승리**
2007년	신규 조직화 •대림플라스틱(100명) : 1차 부품업체 •DSC(200명) : 1차 부품업체로 기존 기업별 유령노조였으나 가입	•세천향예술단(5명) : 4개월여 지역연대 승리 •경주세계문화엑스포(15명) : 공공기관 공채 •경주교육문화회관(14명) : 용역노동자 •경주드림센터(13명) : 용역노동자
2008년	신규 조직화 •대동산업(14명) : 최초의 사내하청 조직 •DAS(560명) : MB 소유, 아산 130명 추가 •인지컨트롤스(110명) : 1차 부품업체 •청우(20명) : 2차 부품업체	•경주드림센터(471일 투쟁) : 용역깡패 투입시 지역확대간부파업 •경주CC : 3개월여 투쟁 지역연대 승리
2009년	신규 조직화 •대진공업(50명) : 자동차 및 나노기술 •영진기업(26명) : 2차 부품업체 •고려산업(50명) : 1차 부품업체	신규 조직화 및 투쟁 •경주재활용선별장(15명) : 민간위탁 저지 **금속노조경주지부 지역총파업** •경주CC : 3개월여 투쟁 지역연대 승리 •토비스콘도(20명) : 정규직 •동국대학교병원미화(27명) : 용역노동자
06년 ~09년	2001년 금속노조경주지부 출범시 11개지회 1,600여명에서 2009년말 23개지회 3,200여명으로 확대	경주를 비롯 경북지역 전역에서 조직화 및 완강한 투쟁 전개.(2009년말 현재 18개 사업장 430여명 조직)

※ 언론의 보도

민중언론	보수언론
※ 2006. 10. 25. 레디앙 진정한 연대파업 보여준 금속노조경주지부 25일 지역노동자 2천5백명 파업...동국대 청소아줌마 해고철회 요구	※ 2009. 7. 20. 조선일보 경주(慶州)는 노조 천국 민노총 이탈 움직임 속 유독 경주에선 급성장 조합원 41%나 늘고 전임자 전국 평균의 3배
※ 2006. 11. 1. 레디앙 '아름다운 연대' 청소아줌마 전원복직	※ 2009. 8. 21. 중앙일보 민주노총 '막가파식 파업'...어디까 끝인가 민주노총의 파업양상이 정말 가관이다. 이 단체 산하 금속노조는 그제 1200여명의 조합원을 끌고 경주 도심에서 연대파업을 벌였다. 경주시가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근로자 15명을 정리해고했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 2009. 8. 18. 주간변혁산별 비정규직 연대 4시간 총파업 19일 금속노조경주지부 재활용선별장 연대파업...연대는 나를 지키는 투쟁	

2.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현황

① 집중 기획탄압에 밀리는 현실

- 2009년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경주지역 노조운동 보도는 기획 탄압의 전주곡.
- 2010년 경주지역의 핵심노조였던 발레오만도 투쟁이 허망하게 패배한 이후 금속노조 탈퇴와 투쟁패배가 계속되며 많은 지역동지들이 무력감에 빠져있음.

금속노조경주지부	경북일반노조
2010. 03월 영진기업 탈퇴 : 원청 물량 협박	2010. 10월 재활용선별장 531일 투쟁패배(해산)
03월 한국펠저 공장이전(해산) : 독일 자본	11월 토비스콘도 부도(해산)
06월 발레오만도 탈퇴 : 직장폐쇄 투쟁패배	
11월 광진상공 탈퇴 : 원청 물량 협박	※ 이밖에 경주지역에서는 지역 직가입노조였던 '경신
2011. 02월 전진산업 탈퇴 : 원청 물량 협박	공업'(320명)이 2010년 희망퇴직 수용하며 이탈

② 양적 성장을 질적 전화로 발전시켜내지 못한 한계, 관성적 노조활동의 한계 드러남

- 그동안 집행부 중심의 해결사, 자판기적 노조활동의 문제점.
- 지침파업, 담합파업의 한계 드러남.
-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건강한 활동가들을 키워내는데 게을리하고, 지침 수행하는 일회성·실무적 간부들만 양성.

③ 민주노총의 중심성 약화와 정파의 폐해

- 금속노조로의 집중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으로의 집중성 약화 : 경주지역은 금속(자동차부품)이 중심에 서고 호텔 및 병원·운수 등 공공부문이 뒷받쳐주는 구조였는데, 타지역보다는 덜 하지만 금속노조 중심성이 심화되며 민주노총 지역활동이 약화되는 현상.
- 여기에 일부 정파가 경주지역 조직화를 시도하며 곳곳에서 폐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민주노총, 금속,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부 선거를 중심으로 계속 문제 발생.

④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 정체

- 2010년 계속되는 투쟁과 함께 수세로 몰리기 시작하며 조직화 사업 중단된 상태.
- 있는 조직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도 쉽지 않은 상황.
- 금속노조경주지부는 공단 중심의 집단조직화를, 경북일반노조에게는 타켓을 정한 집중조직화(호텔·콘도 비정규직/지자체 비정규직/대학·병원 비정규직 등)를 제안하고 있으나 부정은 못하면서 실천은 안되는 상황.

⑤ 노동문제에 갇힌 활동 지속

- 활동의 중심이 조직된 조합원의 임금/고용/복지/노조탄압 등 사업장내 문제에 갇혀 있음.
- 지역운동(경주지역의 경우 방폐장 문제/무상급식 문제 등 지역대책위 구성)에 있어서는 내용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올려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3.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① 공세적 조직화로!

- 현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주요과제라는 측면에서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시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세에 몰린 경주지역 노동운동의 돌파라는 측면에서도 공세적인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음.
- 경주지역은 금속노조경주지부와 경북일반노조를 두 축으로, 이전의 상담을 통한 개별사업장 조직화라는 한계를 넘어 집단적·집중적 조직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② 집단적 지역활동가 양성으로!

- 단지 양적·기능주의적 조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곳에서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주체(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활동가)들을 집단적으로 양성해내지 않으면 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음.(물론 기존 정규직노조에서도 마찬가지)
- 지역차원의 활동가 양성은 실리화되고 취약해지는 현장조직력을 복원시켜낼 주체로서, 사업장을 넘어서고/정파를 넘어서고/노조활동을 넘어서는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③ 지역을 중심으로!

- 사업장 따로, 산별조직 따로, 민주노총 지역조직 따로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단결하고/투쟁하고/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복수노조 시대로 접어들며 기업별회귀와 담합/反산별의식이 확대되는 것의 대안으로서 '지역 중심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민주노조운동 본래의 방향으로!

-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인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성/(도덕성)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방향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정규직/대기업/남성/정주/비장애/취업/조직노동자 중심의 운동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이주/장애/실업/미조직노동자 중심의 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⑤ 지역운동과의 결합으로!

- 지역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은 상급조직 지침수행/소속사업장 관리/투쟁사업장 지원·연대는 기본이 되면서(현재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활동가 양성 교육/불안정노동자 사업과 함께 삶과 생활의 영역인 지역운동과의 결합과 실천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할 것임.
- 노동의제를 포함한 지역운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관변시민단체나 개량적시민단체를 넘어 지역에서 대안운동을 모색하는 단체들과 함께 지역운동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첨부> '경북일반노조 5년평가 토론자료'+'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평가안'

<토론문>

산업적/지역적 특성에 따른 조직화/민주노조 운동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본 글은 오세용 동지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1. 문제 의식

- 발제문은 산업적 특성(자품사 정규직)과 지역적 특성(서비스업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을 금속 지역지부와 일반노조의 조직 체계를 통해 통합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양적 확대만으로는 2009~10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보이듯이 경제여건에 변화에 따른 산업적 변화에 매우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 해방의 지향을 통해 정세 조건의 어려움을 돌파해 낼 수 있는 강한 지역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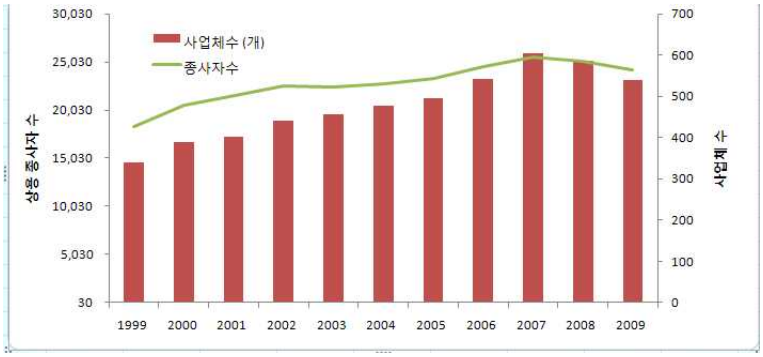
- 위 주장에 모두 동의.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의 전략 조직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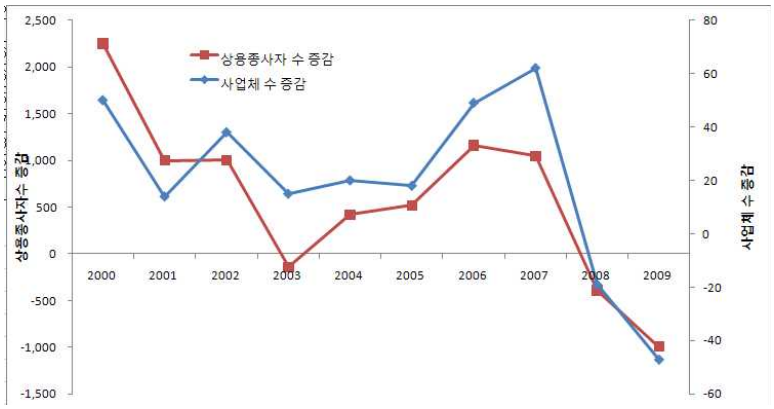
	경주	수도권
산업적	1차 중규모 자품사	전자, 금속가공 등 다양한 중소제조업체 서비스업 규모 압도적으로 큼
공단 특징	지역내 소규모로 산재	대규모 집적 단지
원청	현대차/원청 노동조합 유	삼성전자 LG전자 통신업체 등 다양 무노조 어용노조 원청사업장
노동조합	지역 내 노동조합 조직률 상 금속 사업장 경제비중 상	지역 내 노동조합 조직률 하 유노조 사업장 경제 비중 미미
지역 노동자	유출입이 많지 않음	매우 큰 유출입과 대규모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
외부 자원	노동조합 외 사회운동 하	다양한 사회운동 존재

- 수도권 노동자 밀집 지역(공단)에서 경주와 같은 여러 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상황. 그렇다면 무엇이 조직화 운동, 민주노조 운동 강화에 핵심이 될 수 있을까?

- 아래 글은 경주지역 일반 현황을 발제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수도권 상황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임.

2. 경주 지역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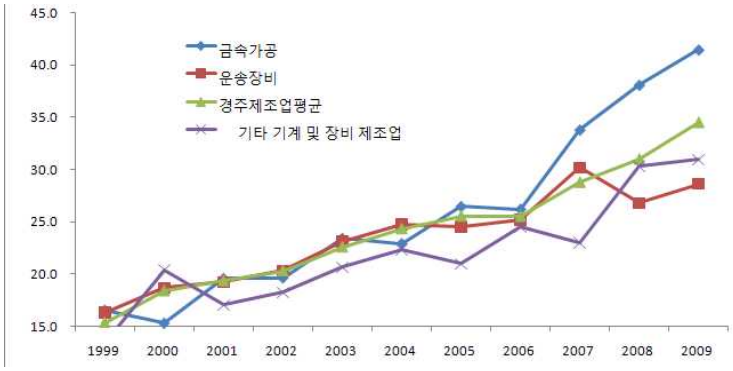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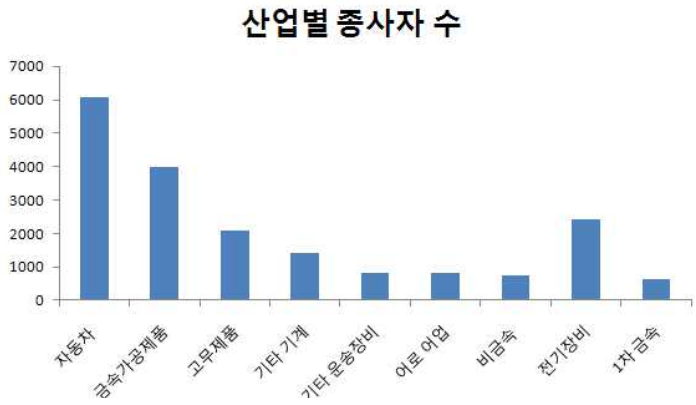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광업 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99년 339개 사업체에서 2007년 605개까지 증가. 경제 위기 이후에는 539개로 감소.

- 상용 종사자 수(상용 종사자, 비정규직 제외)는 기업체 증가 속도보다 느림. 99년 1만8천명에서 2007년 2만 5천 명으로 증가. 경제위기 이후 2009년에는 2만 4천명으로 감소.

- 특징적인 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구간. 발제문에 따르면 이 기간은 경주지역 운동의 '성장, 활성기'이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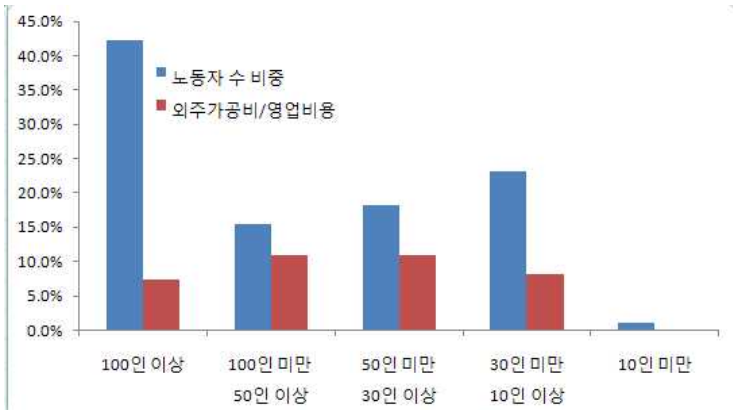
-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대차-자품사의 동반 성장이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과 맞아 떨어지며 노동조합 운동의 중흥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임.





– 발제문에서 경주 노**동운동 성장·활성기로 지칭되는 2006년부터 임금 역시 예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운송장비(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정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외동 등에서) 중소사업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없는 신규 사업체의 경우 경제적 효과, 노동조합 투쟁으로 인한 노동조건 향상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



– 규모별 특징을 보면 1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상용직 노동자의 40% 가까이를 차지. 동시에

이들 사업장의 경우 외주가공비 비중이 오히려 다른 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그래도 대규모 사업장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을 막아내었기 때문으로 보임. 오히려 노조 조직률이 낮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영업비용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이 11%로 100인 이상 사업장보다 4%p 가까이 높은 상황.

- 발제문에서 언급된 **2005년 경주지부의 사내하청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이후 2006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체들에서 불법파견 근로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예상** 가능.

3. 주요 공단의 현황과 노동조합

- 90년대 자품사 중심으로 금속 운동 진행. 산업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지역집단교섭이 이야기될 정도.

- 발제문에 따르면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이후 산업내 임단협에 집중하면서 지역적 운동보다는 산업적 운동에 치중. 또한 금속 중심 투쟁으로 지역운동 치중되며 민주노총 지역활동이 약화.

- 2006년 외동농공단지와 인근 대형 부품업체 조직화에 성공하면서 성장.

경북일반노조의 향후 방향정립을 위하여!![1)]

— 경북일반노조 5년의 평가를 중심으로 —

오 세 용 ‖ 경북일반노조 지도위원 (2010년 12월)

Ⅰ. 문제의 제기

2010년 경북일반노조에 주어진 2개의 상(賞)

경북일반노조는 5년차를 맞는 2010년 큰 상(賞)을 2개나 받았다. 하나는 '고 박상윤 동지 추모사업회[2)]'에서 주는 '맑고 아름다운 상'이고, 또하나는 '이용석 노동열사 정신계승사업회[3)]'에서 주는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 노동자 상'이다.

> 위 조직[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은 지난 6년간 지역 비정규직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활동해 왔습니다.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종의 차이를 넘어 비정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지역연대파업'이라는 소중한 기풍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주노동자들과도 함께하기 위해 앞장서는 등 '낮은 곳으로 향하는 민주노조운동'의 모범을 세우고 있습니다.
>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남성과 여성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라는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계승하고 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 [2010. 10. 30. 이용석 노동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상장 중에서...]

2010년 경북일반노조에 대한 문제제기

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더 부끄럽게 만드는 수상이유다. 경북일반노조가 과연 이런

---

1) 이 자료는 경북일반노조의 향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자료**'로 제출되는 것임.

2) **고 박상윤 동지**. 1968년생.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4. 12. 30. 노동운동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고인의 뜻을 기려 2005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상' 수상.

3) **고 이용석 열사**. 1972년생.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이던 2003. 10. 26.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사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해 모범적으로 단결 투쟁한 동지들에게 '아름다운청년 이용석 노동자상' 수상.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경북일반노조가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제대로 활동해 왔는가?

> "하나의 유령이 경북일반노조를 배회하고 있다. 첫째 관료화, 둘째 관성화, 셋째 무기력화라는 유령이..."
>
> "경북일반노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가 집행부의 게으름과 무능력 탓이라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던가 집행부를 교체해 극복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조직인 경북일반노조라는 노동조합 조직체계상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한계라면, 경북일반노조는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깃발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
> [2010. 9월.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이 사퇴하면서 한 말 중에서...]

2010년 전환점에 선 경북일반노조

밖에서는 후한 평가와 함께 상을 주는데, 안에서는 조직혁신과 조직전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경북일반노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일반노조내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비록 온도차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공감되고 있는 내용이다. 경북일반노조가 5년을 경과하며, 2010년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 역시 공감되고 있다.
경북일반노조에 제기되는 문제도 ▲집행력의 문제 ▲조직화(방식)의 문제 ▲교섭체계 · 구조 및 교섭의제의 문제 ▲투쟁의 문제 ▲일상활동의 문제(교육 · 선전 · 조직 · 문화 등)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 사업의 문제 ▲지역운동에의 개입과 실천의 문제 ▲경북일반노조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 ▲경북일반노조가 나아갈 방향의 문제 등 총체적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극복 ·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 같은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검토로는 안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북일반노조 5년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경북일반노조 5년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경북일반노조를 건설할때와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의 동지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북일반노조의 성공은 경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성공이자 성과요, 경북일반노조의 실패(?)는 경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경북일반노조 5년여 활동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평가를 위한 토론자료로 제출된다. 순서는, ▲먼저 경북일반노조 건설까지의 경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5년동안의 활동을 각 사업영역별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극복과제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다. 많은 부분 내용이 부족하고 개인의 주관적 잣대가 주를 것이다. 여러 동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객관화되기를 기대한다.

Ⅱ. 경북일반노조 건설까지의 경과 (2003년~2005년 6월)

일반노조운동의 시작 및 확산

2000년 4월 부산일반노조가 일반노조로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되면서 이후 일반노조는 전국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부산일반노조가 설립 1~2년의 짧은 기간안에 수백명의 조합원을 조직하여 다양한 투쟁과 사업을 벌이는 성공(?)을 이루자 이에 고무된 영향이 크다 하겠다.
그후 5년여만인 2005년초, 일반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만 전국 26개지역에 건설되어 6천여명 가까이 조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일반노조가 확산된 배경과 그 장점 및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평가되었다.

◎ 일반노조가 확산된 배경

첫째, 산별노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노조 체제로는 더 이상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비정규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업종과 직종으로 분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산업·업종·직업을 뛰어넘어 조직함으로써 계급적 단결, 투쟁의 강화의 필요성이다.

셋째, 기업별노조운동을 극복하여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단위에서부터 조직과 투쟁의 결합을 추구한다.

넷째, 민주노총이 산별연맹으로 안정화되면서 지역단위의 투쟁적 기풍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복원하고 지역단위의 노동연대를 강화해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한다.

다섯째, 지역단위 노동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던 활동가들이 실천적 조직·투쟁이 가능하다는 자각과 이를 통해 스스로 결집할 수 있다.

◎ 일반노조의 장점

첫째, 기업노조를 뛰어넘어 업종과 직종의 구분없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지역단일노조로의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가 지역의 업종·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능하며 폐업·이직 등 기업단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직유지와 확대가 용이한 조직형태

셋째, 의식적 노력과 업종·기업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으로 사회운동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점

◎ 일반노조의 한계

첫째, 교섭구조가 개별교섭중심으로 집중의 효율성이 낮고 사업장단위 활동이 중심인 점

둘째, 재정·인력의 부족으로 활동간부들의 헌신성에 의존하는 점

셋째, 지역단위마다 편차가 크고 아직 초기단계인 지역이 많다는 점

넷째, 일반노조간의 통일성과 전국적 관점이 부족하고 독자적 전망을 세우기 어려운 점

[2006. 3. 28. 지역일반노조운동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경북지역에서의 지역일반노조 건설 모색

> 일반노조는 26개이며 약 5,840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 직가입한 일반노조는 광역시도중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여 광역단위를 기본으로 조직되어 있다...
>
> [2005. 2월. 전국일반노조 실태조사자료 중에서...]

그러했다. 2005년초 전국 26개지역에 일반노조들이 건설되어 활동하고 있었지만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노조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렇다고 경북지역에서 일반노조 건설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들어 비정규직 문제,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과제로 대두되면서 경북지역에서도 2002년부터 민주노총 경북본부 차원의 '비정규특위'를 구성·가동하면서,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요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민주노총 조직활동가학교에 경북지역에서는 각 지역에서 비정규사업을 담당하는 4명이 참석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그동안 말로만 듣고, 글을 통해서만 보던 지역일반노조의 활동가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사례발표까지 듣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이미 타지역에서 건설되어 활동중인 '지역일반노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2003년 6월초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경주시협 주최로 열린 '경주지역 비정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지역일반노조 건설이 제기된다.

> ◎ 지역일반노조 건설 검토
>
> 영세사업장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경주지역일반노조 건설 검토
>
> [2003. 6. 2. 경주지역 비정규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어 2003년 7월에 개최된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담당자 수련회에는 부산일반노조와 전북일반노조의 사례발표가 프로그램으로 배치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수련회에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협의회와 산별 지역조직의 비정규담당자들이 주로 참석했기에, "▲일반노조는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화 방침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노조를 건설한다해도 이에따른 인력과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제기에 그치며 일반노조 건설 문제는 더 깊게 논의되지 못하고 만다. 하지만 그 문제인식은 이어져 이후 2004년 2월에 개최된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산하 경주시협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일반노조 건설이 사업계획으로 수립되기도 한다.

> ◎ 중소영세 비정규 조직화 추진
>
> 2004년내 1~2개 시(지역)에서의 지역일반노조 건설 추진
>
> [2004. 2. 6.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중에서...]
>
> ◎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 준비
>
> 상반기: 지역일반노조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하반기: 지역일반노조 건설 준비위 구성
>
> [2004. 2. 11.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시협의회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중에서...]

2005년 6월 경북일반노조의 출범

2004년은 지역일반노조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계획에 그치고 마는데, 경북지역에서 일반노조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5년 들어서였다. 그 토대는 2005년에도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립된 지역일반노조 건설 사업계획이다.

> ◎ 지역차원의 중소영세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 2005년내 1~2개 지역에서 '지역일반노조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경북지역일반노조' 추진
> [2005. 2. 17.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중에서...]

위 사업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경북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북일반노조'가 아닌 "선(先) 소지역별 일반노조 건설 → 후(後) 경북일반노조로의 통합 건설"을 계획했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경주지역에서는 사전논의를 거쳐 '경주지역일반노조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졌고, 2005. 3. 28. 그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추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노조를 담당할 3명과 이를 지원할 민주노총 경주시협과 금속노조경주지부의 비정규담당자 3명이 결합하였다. 일반노조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사람)가 준비되었고, 재정은 조직화를 통해 조합비로 충당하되 일정 시점까지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 지원 및 경주지역에 있는 노조와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후원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인력과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자 경주지역일반노조 건설준비에 탄력이 붙었다. 추진위원회는 2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하며, ▲타지역 일반노조 사례 검토 · 분석 ▲조직운영 및 재정마련 방안 준비 ▲건설방향 등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4차례의 추진위원회 회의 이후 2005. 5. 16.부로는 준비위원회 체계로 전환해 1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하며,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규약 초안 ▲조직화 방안 ▲실태조사 ▲교육 · 선전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6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2005. 6. 29. 경북일반노조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 ◎ 지역일반노조 '추진위' 경과
> 1차회의(2005. 3. 28. 6명) : 추진위 명칭, 구성, 운영, 역할분담 등
> 2차회의(2005. 4. 11. 8명) : 부산일반노조 사례검토, 건설시기, 조직범위, 재정방안 등
> 3차회의(2005. 4. 25. 7명) : 대구일반노조 사례검토, 재정마련, 건설방향(경주 · 경북) 등
> 4차회의(2005. 5. 09. 7명) : 건설방향 정리(경북), 준비위 전환, 경북지역 제안서 검토 등
>
> ◎ 지역일반노조 '준비위' 경과
> 1차회의(2005. 5. 16. 5명) :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지역토론회 준비, 준비위 역할분담 등
> 2차회의(2005. 5. 23. 5명) : 규약 초안 검토, 지역토론회 준비 등
> 3차회의(2005. 5. 31. 5명) : 조직화 방안, 지역토론회, 사무실 가동 등
> 4차회의(2005. 6. 07. 4명) : 교육사업 준비, 6월 사업계획, 실태조사 등
> 5차회의(2005. 6. 20. 4명) : 선전사업 준비, 단체협약 모범안 검토, 실태조사 등
> 6차회의(2005. 6. 27. 4명) : 출범식 준비, 선전계획, 동국대학교미화 조직 등
>
> [2005. 3월~6월. 지역일반노조 추진위 및 준비위 회의자료 중에서...]

경북일반노조 건설과정에서의 주요쟁점

경북일반노조 건설을 준비하면서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주요한 쟁점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주지역일반노조냐, 경북지역일반노조냐의 문제**였다.

최초 시작은 '경주지역일반노조'였는데 결과는 '경주'가 아닌 '경북지역일반노조' 건설로 귀결되었다. 이는 타지역 일반노조 사례조사차 일반노조운동의 선구격인 부산일반노조를 방문했을때, ▲소지역인 경주지역 노동시장의 협소성과 ▲선(先) 소지역별 일반노조건설 → 후(後) 경북지역 전체로의 통합은 조직의 메카니즘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광역단위인 경북일반노조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쳐 광역단위인 경북일반노조로 출발하게 된 것이었다.

둘째는, **기존 기업별노조 및 산별노조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즉, 왜 굳이 지역일반노조를 건설하려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자, 어떻게 민주노조운동 혁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먼저, 기업별노조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 그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사업장 단위는 명칭도 지회·분회가 아닌 현장위원회로 하였고, 사업장 대표(수석현장위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한 선거가 아니라 내부 추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정도 일체의 사업장 단위 분배없이 경북일반노조로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섭권·쟁의권도 사업장 단위에는 부여하지 않고 경북일반노조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예 기업별노조의 관행을 철저하게 없애, 사업장 현장위원회는 경북일반노조의 한 단위일뿐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후퇴된 지역연대 복원, 지역운동의 전개 등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복무하고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때 '경북지역일반노조'라는 명칭에서 "지역"이 중심인가? "일반"이 중심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북일반노조의 향후 방향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음에도 당시에는 조직된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기에 일단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치열한 논의가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셋째는, **먼저 건설되어 활동하고 있는 타지역 일반노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 극복의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는데, 하나는 정파개입으로 인한 폐해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관계 문제였다.

정파개입으로 인한 폐해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정파적·비정파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과 노선은 존중하되, 이것이 분파활동으로 정파조직사업으로 경북일반노조내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됨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관계 문제는 애초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공식적 사업계획으로 입안되어 추진된데서 알 수 있듯이, 또 최초 추진주체가 민주노총 경북본부 밖에 있는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지역협의회의 사무처 활동가들로 구성된 '민주노

총 경북본부 비정규특위'였던데서 알 수 있듯이, 경북일반노조 건설과정은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공식단위인 '비정규특위,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지역별 대표자회의' 등과 긴밀하게 논의되면서 진행되었다(2005년 5월초에는 '경북지역일반노조 건설 제안서'를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제출해 전조직적으로 5월말까지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 결과 경북일반노조는 별개의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된다.

경북일반노조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

경북일반노조는 경북지역에서 일반노조 건설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된 2003년이후 2년만에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듯 2년이나 걸린 것은, 건설의 필요성 제기 및 사업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인력·재정마련, 세부 추진계획 등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하겠다. 즉,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 경북일반노조 건설 준비과정 대부분의 기간에서 나타났던 한계로는 **▲지역일반노조를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 기능주의적이고 조직 형식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점**과 ▲출범 두달여전까지도 **소지역별 일반노조 건설이라는 협소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소지역별 관점은 '경북'일반노조를 건설하는 것으로 극복이 되었지만, 전자의 조직 기능주의적 관점은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후 5년여의 활동속에서 과연 극복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

경북일반노조 건설과정에서의 긍정적 측면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그 산하 경주시협의회라는 공식조직에서 제기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산별 조직화 방침과의 충돌문제는 "지금은 산별이냐 일반노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사실상 일반노조 건설이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공식체계속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공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경북일반노조는 다른 지역의 일반노조들과는 다르게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여러 곳에서 좋게 평가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 ◎ 조직의 영세성 극복이 관건
> ...경북일반노조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단위로 상정하여 건설되었고,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역본부와 지역지부 단위에서 비정규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의 안정성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투쟁에서 지역본부와 지역지부가 결합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거운 부분은 있으나 지역전체가 유기적으로 짜여져 움직이며 미조직·비정규직 조직과 지역적 실천을 전개하는 좋은 사례이다.
> [2009.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276쪽에서...]

한편, 경북일반노조가 준비기간의 많은 논의를 통해 **출범당시 설정했던 '상'**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겠다.

◎ 출범당시 설정했던 경북일반노조의 '상'
①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경북일반노조
②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경북일반노조
③ 정파·분파주의적 폐해를 극복하는 경북일반노조
④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북일반노조
⑤ 지역운동에의 개입과 실천을 전개하는 경북일반노조

그 성사여부를 떠나 경북일반노조의 출범시 계획자체는 대단히 야심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위와같은 내용들이 또다시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남아 있었는가? 아니면 '그 실천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전형을 창출'해 나갔는가?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Ⅲ. 경북일반노조 5년의 사업에 대한 평가 (2005년 6월~현재)

1. 조직화에 대하여

(1) 경북일반노조 조직현황

2005년 6월 29일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속에 경북일반노조가 출범했다. 관심과 기대는 비정규·미조직노동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으므로 많이 조직될 것이라는 점에서였고, 우려는 '경북일반노조 건설 이전에도 많은 조직화 사업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는데 과연 조직이 되겠는가?'하는 점에서였다. 실제로 경북일반노조는 출범 당시 조직된 사업장 기반없이 일반노조 건설 주체 및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단 14명으로 출범했기에 조직화에 대한 우려는 컸다 하겠다.

그리고 5년여... 경북일반노조는 경북지역 23개 시군중 6개 시군에 걸쳐 18개 사업장 486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이 되었다. 경북일반노조의 연도별 조직현황 추이는 다음과 같다.

◎ 경북일반노조 조직현황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조합원수	77명	112명	262명	267명	436명	486명
사업장수	3개	7개	12개	12개	18개	18개
포괄지역	2개 시군	4개 시군	5개 시군	6개 시군	7개 시군	6개 시군

[경북일반노조 각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2010년 12월 현재 경북일반노조 486명의 조합원을 보면 정규직이 123명(25.3%), 계약·용역직 등 비정규직이 314명(64.6%), 기타(개별조합원) 49명(10.1%)로 비정규직 비율이 3분의2에

육박해 비정규직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경북일반노조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이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합원 남녀비율은 남자가 301명(61.9%)으로 여자 185명(38.1%)의 약 1.6배에 달하고 있는 등 남성조합원이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경북일반노조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10년 6월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북일반노조 전체조합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7.4년, 평균연령은 44.7세로 조사된 바 있다.]

◎ 경북일반노조 조직현황(2010년 12월초 현재)

구분	가입시기	사업장(현장위원회)	지역	조합원 수			고용형태				
				남	여	계	정규	계약	용역	기타	계
1	2005. 06월	개별조합원	경북	27	22	49	.	.	.	49	49
2	07월	동국대학교미화	경주	8	34	42	.	.	42	.	42
3	10월	경주CC	경주	4	.	4	4	.	.	.	4
4	11월	경상병원환자식당	경산	.	13	13	13	.	.	.	13
5	2006. 05월	경산노인병원	경산	4	13	17	.	.	17	.	17
6	11월	안동대학교미화	안동	.	24	24	.	.	24	.	24
7	12월	세천향예술단	경주	.	3	3	3	.	.	.	3
8	2007. 04월	경상병원미화	경산	.	1	1	.	.	1	.	1
9	05월	포항시립예술단	포항	16	16	32	.	32	.	.	32
10	07월	대아고속해운	포항	51	6	57	57	.	.	.	57
11	09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경주	8	6	14	.	.	14	.	14
12	11월	영주시청미화	영주	33	.	33	.	33	.	.	33
13	2009. 02월	상주시청미화	상주	86	2	88	.	88	.	.	88
14	03월	상주시소각장	상주	14	.	14	.	.	14	.	14
15	04월	대영금속	경산	42	4	46	46	.	.	.	46
16	12월	포항근로자복지관	포항	3	5	8	.	.	8	.	8
17	2010. 02월	Y사	Y	5	.	5	.	5	.	.	5
18	05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경주	.	1	1	.	.	1	.	1
19	07월	경산노인병원간병	경산	.	35	35	.	.	35	.	35
계		18개 사업장	6개 시군	301 (61.9)	185 (38.1)	486 (100.0)	123 (25.3)	158 (32.5)	156 (32.1)	49 (10.1)	486 (100.0)

※개별조합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10년 10월말 투쟁을 정리한 '경주재활용선별장' 동지들을 개별조합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임.
※2008년 조직된 사업장이 없는 것은 '세일개발'을 포함해 조직되었던 5곳 모두 탈퇴했기 때문임.

(2) 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

경북일반노조 **조직화에 있어서의 특징은, 조합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감소하지도 않으면서 완만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과 2008년 일시적 조

직화 정체기는 있었지만, 연평균 3~4개 사업장 100여명 정도씩 꾸준하게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경북일반노조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 활동여하에 따라 700~800명, 나아가 1천명 이상으로의 조직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경북일반노조 조직화 사업에 대해 매년 한계로 평가되었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자.

① 첫째는, 경북일반노조 차원의 계획된 조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찾아오는 상담에 의한 조직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조합원에 의한 조직화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② 둘째는, 어렵게 조직이 되었는데 이를 유지하지 못해 탈퇴하는 사업장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5년여 동안 현재 조직된 사업장 및 조합원 규모와 맞먹는 사업장과 조합원의 탈퇴가 이루어졌다.
③ 셋째는, 조직된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내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소수노조'가 6~7개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2011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현실화되면 심각하게 나타날 소지가 큰 문제이다.
④ 넷째는, 장기투쟁사업장이 발생하게 되면 조직화 사업은 거의 손을 놓게 되고, 그 극복을 위해 해당 지역별 조직화를 책임지는 '지역지부 건설'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매년 제기되는 위와같은 한계들은 분명 극복되어져야 한다. ▲계획된 기획조직화가 되어야 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으는 현상은 극복되어져야 하며, ▲조직된 사업장내 전체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역지부 건설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직화 사업에 있어 이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먼저, **경북일반노조가 과연 조직 기능주의적 · 조직 형식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조직화 관점'의 문제**이다.

경북일반노조 5년여 과정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질문은 "경북일반노조에서 이주노동자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 경북일반노조에서 지역운동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데?"라는 것 보다는 "경북일반노조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인데?"라는 질문이었다. 소위 '조합원수'라는 조직규모에 우선적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북일반노조의 사업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조직의 규모보다는 조직의 질과 내용이 우선이고, 조합원수에 연연해 하지않는 노조, 조합원이 100명이라도 1,0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직 기능주의 · 조직 형식주의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지점이다. 조직화를 통해 조합원수를 늘리는 것이 마치 경북일반노조의 발전이고 성과인양 착각하면서 조직성과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았나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북일반노조에서도 이제 '전략조직화'가 진행되어져야 하고, 그 전략조직화는 기존의 조직화 방식 및 내용과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볼때 경북일반노조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경북일반노조가 전략조직화에 걸맞게 조직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는가?

고용문제·해고 등 급박한 현안문제가 걸린 개별사업장의 상담에 의해 급박하게 조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동안 경북일반노조는 기존 기업별노조·산별노조들이 행해왔던 사업장별 조직화 방식을 답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때그때의 수공업적·무차별적 조직화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조직된 사업장별 교섭·투쟁에 매몰되게 되고, 조직된 사업장이 늘어날수록 집행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하는 커질 수밖에 없다. 상근인력 1~2명이 더 투여되면 조금 더 조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일정상황이 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 것임이 분명이다.

따라서 빠른시간내에 조직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지역 혹은 일정업종에 대한 '집단적 전략조직화'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집단적 전략조직화'는 단지 조직화뿐만이 아니라 교섭·투쟁·일상활동 등과도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이를 주요하게 담당할 '활동가 양성'의 문제와도 연관된 것이다.

2. 교섭에 대하여

(1) 경북일반노조 교섭현황

다른 일반노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북일반노조도 정말 많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교섭, 매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 단체협약 갱신교섭, 여기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까지...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필요하면 끈질기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3년넘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5년을 다 살필것도 없이 2010년 교섭상황만 살펴보아도 이는 그대로 드러난다.

아래 교섭현황표를 보면, 월별 적게는 6~7개, 많게는 13~14개 사업장의 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있다(이는 경북일반노조가 사업장 교섭에 있어 주1회 교섭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1주당 교섭횟수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교섭이 1주 1회씩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주 1회~1개월 1회 개최되기도 하고 장기간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래표의 월별 교섭사업장 수는 실제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략적인 교섭현황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장 수가 늘어나며 교섭이 1년내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들어 교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명박 정권들어 자신감에 찬 자본의 버티기로 교섭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조그만 용역회사마저 노무사를 고용해 교섭에 참가시키는 것은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탄압·노조말살이라도 자행되면 장기투쟁·장기교섭으로 돌입하기 십상이다.

❁ 경북일반노조 2010년 교섭현황

구분	사업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1	경산노인병원													4개월
2	경산노인병원간병													진행중
3	경상병원미화													진행중
4	경상병원환자식당													진행중
5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4개월
6	경주재활용선별장													10개월
7	경주CC													6개월
8	대아고속해운													진행중
9	대영금속													진행중
10	동국대경주병원미화													진행중
11	동국대학교미화													2개월
12	상주시소각장													5개월
13	상주시청미화													5개월
14	안동대학교미화													8개월
15	영주시청미화													8개월
16	토비스콘도													10개월
17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월
18	포항시립예술단													진행중
	18개 사업장	6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3개	13개	13개	9개	7개	

[2010년 각 현장위별 교섭회의록 및 주간소식지에서...]

(2) 교섭에 대한 평가

경북일반노조의 '교섭능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교섭력이라 하지 않고 교섭능력이라 표현한 것은 교섭력이란 조합원들의 조직력·투쟁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전국에서 유명한 한 노무사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조그만 사업장에 뭐하러 왔느냐?"고 하자 "경북일반노조가 교섭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경험도 없는 사용자측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왔다"고 받아넘길 정도였다.

경북일반노조의 교섭능력은 다른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랜 노조활동의 경험**과 ▲다양한 사업장 조건이지만 이에대해 **사전 철저한 준비**(타지역·타사업장 사례조사, 해당사업장 관련 법률 및 내용파악 등...그러하기에 조합원이 10명인 사업장이든 100명인 사업장이든 교섭에 투여되는 준비와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섭에서 **사용자측을 압도하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물론 경북일반노조 5년여의 교섭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도 많다. 2009년의 사업평가중 교섭운용에 대한 평가를 보자.

> ◎ 교섭운용
> ...드러난 문제점은, 그동안 현장 교섭역량 강화에 게을리 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장은 3년~4년이 되어 많은 교섭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역량으로 발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지역별로 담당자의 개인적 역량과 판단에 크게 좌우되면서 제반 교섭이 통일성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 역시 드러났다...
> [경북일반노조 2009년 사업평가 중에서...]

▲현장 교섭역량의 취약과 ▲경북일반노조 차원의 교섭 통일성 미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에 이어 2010년에는 현장 교섭위원들이 참가한 1박2일의 '교섭위원 역량강화 수련회'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2010년에 몇몇 사업장에서 양보교섭과 후퇴교섭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북일반노조의 교섭운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보다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는, **'교섭'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9년 사업평가시 다음과 같이 평가된 바 있는데, 그 문제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 ◎ 교섭운용
> ...더욱 중요한 검토 지점으로는 '교섭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현장의 요구를 집약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상의 노동조합인 이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업장별 이해와 요구를 기초로 한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교섭-임금인상 교섭-단체협약 갱신교섭-또 임금인상 교섭'을 반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단체협약을 꼭 맺어야 하는가? 임금인상은 교섭없이 기본룰을 정해 인상하면 안될까? 교섭이 정 요구된다면 사업장과 업종을 뛰어넘는 지역별 집단교섭은 불가능한가? 나아가 교섭없는 노조활동은 불가능한가? 등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혹은 말도 안되는' 상상이라 하겠지만 현재의 소모적 사업장별 교섭형태와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모아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 [경북일반노조 2009년 사업평가 중에서...]

노동조합인데 교섭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당연한 인식'이 현 민주노조운동을 어렵게 만는 요인중의 하나이고, 경북일반노조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는, **사업장별 교섭구조 및 교섭의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조직화는 바로 개별사업장 단위의 교섭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직된 사업장 수가 늘어날수록 교섭의 하중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반노조들의 공통적인 한계

로 지적되는 “교섭구조가 개별교섭중심으로 집중의 효율성의 낮다”는 점이 경북일반노조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어 당분간 교섭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까지와 같이 계속 ‘사업장별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 교섭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섭의제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5년여 동안 진행된 경북일반노조의 교섭의제 대부분은 해당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 고용보장 · 노동조건개선 등이 중심이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기존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들이 계속하고 있는 소속 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한 임금 · 고용 ·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교섭관행을 경북일반노조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다. 이로인해 경북일반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의식과 활동을 사업장내 의식과 활동으로 가둬두며 실리주의를 부추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중소영세 · 비정규직들이기에 이와는 다르다고 할 것인가? 개별사업장 자본과의 교섭이기에 이것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인가? 지역운동과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교섭과 투쟁은 불가능한 것인가?

기존의 사업장별 교섭을 통해 조직된 조합원의 임금 · 고용 등을 중심으로 한 교섭관행을 반복했을때 경북일반노조의 앞날은, 극복되어야 할 소위 ‘경제주의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에 빠지며,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비정규직 노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셋째는, **현장 교섭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넘어 ‘집단적 교섭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다.

1주일에 적게는 3~4회, 많게는 6~7회나 실시되며 1년내내 쉼없이 이어지는 교섭구조, 이를 집행부와 지역의 일부가 거의 전담하는 상황은 교섭에 대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섭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교섭에 대한 실무적 역량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 계급적 관점과 함께 ▲교섭실무 및 법률, 나아가 ▲교섭전반에 대한 기획과 ▲교섭과정을 통한 조직력 강화의 관점”까지 갖추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진대, 현장 교섭위원들의 실무적 교섭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역량을 갖추고 교섭을 담당 ·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장 및 지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활동가 양성’을 통해 ‘집단적 교섭역량을 구축’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투쟁에 대하여

⑴ 경북일반노조 투쟁현황

경북일반노조에서는 2006년 4월 경주CC에서 노조탄압분쇄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투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짧게는 경상병원환자식당의 하루 4시간 부분파업에서부터 길게는 경주드림센터의 471일 천막농성 · 경주재활용선별장의 531일 천막농성까지 있었다. 많을때는 3~4개 사업장이 동시에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매년

6~9개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투쟁과 3~4개 사업장에서 장기투쟁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일반노조 투쟁에 있어 피켓팅 · 선전전 · 집회는 기본이고, 삼보일배, 단식, 점거 · 봉쇄투쟁에 천막 및 컨테이너 농성, 지역연대파업까지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일반노조하면 1년내내 조직하고, 1년내내 교섭하고, 1년내내 투쟁한다는 말이 경북일반노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 경북일반노조 투쟁현황

구분	사업장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1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1개월여 투쟁
2	경상병원미화						고용승계투쟁
3	경상병원환자식당						전면파업 4시간
4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부분파업 45일
5	경주드림센터						천막농성 471일
6	경주재활용선별장						천막농성 531일
7	경주CC						천막농성 89일
8	대아고속해운						1개월여 투쟁
9	대영금속						전면파업 4일
10	동국대경주병원미화						사망사건 관련
11	동국대학교미화						천막농성 61일
12	동화개발						농성 123일
13	상주시소각장						전면파업 3일
14	상주시청미화						천막농성 108일
15	세일개발						천막농성 99일
16	신라국악예술단						천막농성 20일
17	안동대학교미화						전면파업 3일
18	영주시청미화						천막농성 144일
19	우향고속관광						3개월여 투쟁
20	진보병원						천막농성 18일
21	토비스콘도						전면파업 83일
22	포항시립예술단						4개월여 투쟁
		6개	7개	7개	9개	7개	3개 투쟁중

[경북일반노조 각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투쟁에 따른 후과도 만만치 않았다. 고소 · 고발이 자행되어 벌금을 낸 것만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고,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압류 · 경매에, 2009년에는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으로 위원장과 정책교육국장이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2010년이 저무는 현재도 경산지역의 대영금속과 경상병원환자식당 · 미화 등 3개 사업장이 투쟁중에 있기도 하다.

경북일반노조에서 5년여 동안 투쟁을 전개하며 수립한 투쟁방침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경북일반노조의 투쟁방침
①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응징한다.
② 모든 투쟁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할때까지 싸운다?]
③ 임금 · 단체협약 등 자체 노동조건개선 요구로는 (가급적)파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④ 임금 · 단체협약은 자체투쟁으로, 해고 · 노조탄압투쟁은 지역연대투쟁으로 돌파한다.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말 겁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에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⑵ 투쟁에 대한 평가

경북일반노조에서 전개했던 많은 투쟁은 승리와 패배, 성과와 한계가 교차했다.

경북일반노조에서는 모든 투쟁에 있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해고 · 노조말살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본의 혹독한 탄압에도 '구속밖에 더 되랴?'라는 각오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들어 자신감 저하와 패배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찌보면 무모하리만큼 투쟁에 임해 지역에서 "경북일반노조는 승리할때까지 싸우는 조직"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는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적 범죄행위이고, 노조탄압 · 노조말살 역시 유일한 보호막을 없애려는 범죄행위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투쟁이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정신과 각오는 계속 요구되는 바라 하겠다.

한편, 경북일반노조 투쟁에 있어 검토 · 평가해 보아야 할 지점으로 자체 임금 · 단체협약 중심의 노동조건개선과 관련한 투쟁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 · 노동조건개선으로 투쟁(파업)에 들어가면 자칫 기존 정규직 노조들의 행태를 반복할 수 있기에 투쟁보다는 끈질긴 교섭과 압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쟁없이 교섭으로 해결이 안될 수 있고 비록 임금 등 경제적 투쟁이라도 투쟁을 통해 조합원 의식과 조직력을 높여낼 수 있기에 투쟁(파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무 자르듯이 어느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준은 필요하다 하겠다.

보다 주요한 점은 그동안의 투쟁에서 나타난 한계이다.

먼저, '**과연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을 전개했는가?**'하는 점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단지 '조직'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새로운 주체로 만들어낸다는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조합활동의 전과정에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특히 자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투쟁시기 동안 조합원 스스로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경북일반노조의 많은 투쟁에서 보여진 모습들은 집행부가 "해결사 역할"을 하며 조합원들에게는 집행부를 믿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조

합원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 여성이라는 것, 투쟁경험이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들이었다.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자발적 투쟁"이 될 때 투쟁의 승리와 패배 여부를 떠나 진정한 투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의 투쟁은 많은 부분 "집행부가 대신해주는 투쟁, 지역 동지들이 대신해주는 투쟁"은 아니었던가 반성할 지점이다.

다음으로, **투쟁의 관성화에 대한 문제**이다.

주·객관적인 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할때에 다양한 투쟁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투쟁승리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경북일반노조에서 진행된 많은 장기투쟁에서 보여진 모습은 '질긴놈이 이긴다.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버티기 투쟁' 중심이 아니었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과 함께 다양한 투쟁방안에 대해 토론하여 준비된 투쟁프로그램하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피켓팅-집회-천막농성 등 관성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어느 투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북일반노조 투쟁에 있어 '조합원의 주체화+올바른 투쟁의 전략·전술+지역연대'가 투쟁승리의 기본 관건일진대 이후 투쟁에 있어 관성적 투쟁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할 지점이라 하겠다.

4. 지역연대에 대하여

(1) 경북일반노조 연대현황

일반노조운동이 시작된 배경도 그러하거니와 경북일반노조 역시 '지역연대의 복원·활성화'를 주요한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경북일반노조에서 천명한 연대방침 및 그동안 진행한 연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북일반노조의 연대방침

① 경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상시적 연대
② 지침에 의한 연대·간부들만의 연대 극복
③ 수직적·전국적 연대를 뛰어넘어 수평적·지역적 연대 확대
④ 이주·장애·실업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연대 강화
⑤ 지역운동(지역사회운동·지역정치운동)에의 개입·실천
⑥ 연대강화를 위한 조합원 의식강화 교육

[2009. 4. 24. 민주노총 경북본부 활동가대회 경북일반노조 발표문에서...]

◎ 경북일반노조 연대현황

구분	2005년 (7월~12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8월)
연대 참여	23회	75회	91회	63회	62회	74회

[경북일반노조 각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⑵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매년 사업보고상에도 드러나듯이 **경북일반노조는 5년여 동안 경북지역을 넘나들며 지역연대에 최선을 다해 복무**해 왔다. 단 1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연대투쟁이 요구되는 곳, 연대집회·행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집행부의 의식적 노력과 함께 지역연대의 수혜를 받은, 특히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의 참여가 이를 가능케 했다. 지역에서 '경북일반노조만큼만 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북일반노조는 지역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했다.
2006년 10월 동국대학교미화 부당해고 철회투쟁시와 2009년 경주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부당해고 철회투쟁시의 경주지역 연대파업을 비롯, 각 지역에서 전개된 경북일반노조의 모든 투쟁에는 경북지역의 동지들이 헌신적으로 지원·연대했다. 어쩌면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이를 믿고 겁없이(?) 투쟁을 전개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했기에 지역연대투쟁을 통해 승리한 경북일반노조 사업장이 이후 지역연대에 소홀하거나 심지어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하면 지역에 고개를 못들기도 하였다.

> ◎ 진정한 연대파업 보여준 금속노조경주지부
> 25일 지역노동자 2천5백명 파업 … 동국대 청소아줌마 해고철회 요구
> [2006. 10. 25. 레디앙(www.redian.org) 기사 중에서...]
>
> ◎ '아름다운 연대' 청소아줌마 전원복직
> 31일 경북일반노조 노사합의 … 금속노조경주 '산별노조의 힘'
> 금속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파업으로 쫓겨났던 청소아줌마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오게 됐다...지난 10월25일 발레오만도·IHL·일진베어링 등 금속노조경주지부와 아폴로산업노조 등 금속 12개 사업장 2천5백명이 오후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고, 1천여명의 노동자가 동국대앞에 집결해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요구했었다...
> [2006. 11. 1. 레디앙(www.redian.org) 기사 중에서...]
>
> ◎ 비정규직 연대 4시간 총파업
> 19일 금속노조경주지부 재활용선별장 연대파업 … 연대는 나를 지키는 투쟁
> [2009. 8. 18. 주간변혁산별 제70호 기사 중에서...]

이는 중앙 보수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하였다. 당연히 반노동자적 내용이었지만...

> ◎ 민주노총 '막가파식 파업' … 어디가 끝인가
> 민주노총의 파업양상이 정말 가관이다. 이 단체 산하 금속노조는 그제 1,200명의 조합원을 끌고 경주 도심에서 연대파업을 벌였다. 경주시가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근로자 15명을 정리해고했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 [2009. 8. 21. 중앙일보 사설중에서...]

물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다.

먼저, 2008년 경주드림센터 투쟁에서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2009년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투쟁의 기조 및 방향, 세부 투쟁전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경북일반노조와 지역 일부동지들과의 이견**이다.

이는 경북일반노조의 투쟁이 지역투쟁화되면서 지역과 공동으로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하기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후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항이다. 몸을 던져 연대투쟁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동지들이 있었던 반면, 형식적 투쟁 · 보여주기식 투쟁에 그치며 투쟁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지역동지(?)들도 있었다. 무리한 투쟁이니 모험적 투쟁이니 하며 투쟁을 폄하하고, 현실적 대안이라는 교묘한 언사로 투쟁전선을 끊임없이 교란하였다. 결국 그 여파로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승리하지 못하게되면 '그것봐라!'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 '몸 대주고 돈 대줬는데 이게 뭐냐!'는 식으로 매도하는 모습들도 경험했다. 이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과 함께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투쟁회피주의적 · 타협주의적 경향과의 투쟁도 외면해서는 안되는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경북일반노조도 그러하고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진정한 연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말보다 2003년 부산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추도식에서의 김진숙 동지 추도사와 2008년 기륭전자 투쟁에서 많이 언급된 "**진정한 연대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신영복 선생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동안 경북일반노조의 연대가 형식적연대 · 지침연대였는지, 지원연대 · 품앗이연대에 그쳤는지, '함께 비를 맞는 진정한 연대'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철의 노동자를 외치며 수백명이 달려들다가도 고작해야 석달만 버티면 한결 순해져서 다시 그들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또 얼마나 같잖았겠습니까?...

...세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업종을 넘어,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자본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리는 얼마나 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음으로 깨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만 죽고 천날 우리만 깨집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장 무너지는 분노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3. 10. 22. 김진숙 동지의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추도사 중에서...]

5. 일상활동에 대하여

⑴ 경북일반노조 일상활동 현황

경북일반노조는 조직 · 교섭 · 투쟁외에 각종 회의 · 교육 · 선전 · 간담회 등 많은 일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의활동을 보면 대의원대회가 상 · 하반기에 각각 정기 및 임시대의원대회로 개최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지역지부 건설 이후로 미뤄져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은 대신 집행위원회가 한주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주는 지역별 담당자까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지역지부 준비위 회의가, 사업장(현장위원회)별로는 일정규모가 되는 7~8개 사업장에서 현장위 회의가 진행된다.

◎ 경북일반노조 회의체계 및 운영

회 의	운 영	비 고
대의원대회	상하반기 각 정기 · 임시 대의원대회	대의원 30여명
운영위원회	(미구성)	지역지부 건설후 가동 예정
집행위원회	격주 1회 회의	집행부+현장 참관
확대집행위원회	격주 1회 회의	집행부+각 지역별 담당+현장 참관
지역지부 준비위 회의	해당 지역별 회의	지역별 담당+해당지역 현장대표
현장위 회의	주1회 및 2주1회 회의	7~8개 현장위원회 회의 진행

교육사업은 조합원교육과 간부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조합원교육은 많은 사업장에서 월 1회~2월 1회는 실시되고 있고, 간부교육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및 일반노협 차원의 간부교실 · 수련회 등에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10여명의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북일반노조 차원에서는 2007년과 2010년에 교섭위원 역량강화 수련회를, 2008년과 2009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학교'를 진행하기도 한 바 있다.

선전사업은 경북일반노조 출범과 동시에 발행을 시작해 주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주간소식지 '노동자는 하나'가 2010년말 현재 278호까지 발행되었고, 이밖에 부정기적인 투쟁사업장 시민선전물과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시에 발행하는 교섭속보 · 투쟁속보 등이 있고,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 경북일반노조 주간소식지 발행현황 (2010. 12. 13. 현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발행횟수	25회	50회	51회	51회	51회	50회	278회

그리고 조합원교육이 없는 사업장, 현안문제가 걸린 사업장,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수시로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⑵ 일상활동에 대한 평가

경북일반노조에서는 부족한 인력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하에 투쟁 및 교섭사업장에의 결합을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섭·투쟁이 없는 사업장이나 교섭·투쟁이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어느 사업장에서는 비록 농담일지언정 "우리는 경북일반노조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 집행부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뼈있는 농담까지 나오기도 한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면 '일상활동은 조합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의식강화·조직력 강화 활동이 없이는 현장조직력 약화·현장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이는 경북일반노조의 조직력 약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장과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는 조건, 현장 간부역량이 취약하여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활동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게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조합원 교육시간마저 준비가 없다보니 매월 교육시기 다가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 상황, ▲1주일에 한번씩 지극정성으로 주간소식지를 내고 있으나 그 내용보다는 발행 그 자체에 급급해하고 있고 배포여부조차 확인이 안되는 상황, ▲홈페이지는 조합원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홍보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온갖 상업성·음란성 글들로 꽉차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합원들의 경북일반노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 의식조차 사업장내로 회귀·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인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성 체득은 고사하고 사교육과 민간보험, 주식·펀드투자에 열올리는 자본주의형 인간이 되고 말 것이고, 자본의 회유와 탄압에 언제든지 무너질 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다.

이제 일상활동은 **"조합원 의식역량 강화"라는 기조하에 전면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우선, 현장을 책임짐과 함께 지역의 제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올바른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다양한 실무역량을 쌓아 전략조직화 사업, 교섭역량 구축, 지역연대 및 지역운동 실천을 선도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경북일반노조의 미래,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합원 의식강화'를 위한 꾸준한 사업이 기획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자신의 임금인상·고용보장·노동조건개선에만 관심있는 조합원, 지역연대를 다른 사업장 문제로 바라보는 조합원, 사회·경제·정치적 문제해결을 외면하는 조합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민주노조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이를 극복하고자 경북일반노조를 출범시킨 것 아니었는가? 하지만 경북일반노조 역시 극복은 커녕 답습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섭·투쟁하기도 바쁜데 하며 외면하거나 기약없는 과제로 미뤄둘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6. 집행력에 대하여

⑴ 경북일반노조 집행력 현황

경북일반노조의 집행부 구성은 2005년 출범시 4명(2명 상근+1명 반상근+1명 비상근)으로 출발하여 5년이 지난 2010년 현재도 크게 변함이 없다. 오히려 2010년 10월부터는 정책교육국장의 사퇴로 인해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더욱이 조직규모는 18개 사업장에 조합원 486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사실상의 상근인력은 출범시 2.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물론 그동안 조직·투쟁시 지원·결합했던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지역의 비정규사업담당자들이 2009년 위원장과 정책교육국장의 구속 등 경북일반노조의 위기상황을 계기로 그 지원·결합의 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지역 사업이 우선시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현장으로부터의 파견상근도 요원한 실정이다.
경북일반노조는 이 적은 상근인력으로 사실상 조직·교섭·투쟁·교육·선전·법률·총무·회계·일상활동 등 1인 다역의 역할을 해 온 것이었다.

◎ 경북일반노조 집행부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위원장	○ (상 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부위원장	.	.	.	.	○ (비상근)	○ (비상근)
사무국장	○ (상 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정책교육국	.	.	.	.	○ (상 근)	.
조직부	○ (반상근)	○ (상 근)	○ (상 근)	○ (상 근)	.	.
교육부	○ (비상근)	○ (비상근)	.	.	.	.
이주사업부	.	.	.	○ (비상근)	○ (겸 직)	○ (겸 직)
기 타	각 지역 결합	각 지역 결합	각 지역 결합	각 지역 결합	각 지역 결합	각 지역 결합

⑵ 집행력에 대한 평가

경북일반노조 집행부가 지역 동지들로부터 또 조합원들로부터도 제일 많이 들은 인사는 “고생많죠! 수고많죠!”라는 말이었다.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는데 대한, 또 1년내내 힘들게 투쟁하는 사업장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 배려의 말이었다.
말 그대로 경북일반노조 집행부가 ‘헌신성’ 하나로 버텨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마르코스가 말했다는 “모두에게 모든것을 우리에겐 아무것도”(이는 최초의 일반노조인 부산일반노조가 내걸었던 조직원칙이기도 하다)를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조합원에게 모든 것을 집행부에겐 아무것도”로 정리해 집행부 활동의 원칙으로 삼기도 하였다. “하루가 한달같고 한달이 1년같다”는 말, “어렵고 힘들지만 동지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공식적 집회석상에서 자주 언급된 말이기도 하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개인의 달콤한 휴식을 뒤로한 채 경북일반노조 집행부는 5년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헌신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인가? **최근들어 경북일반노조 집행부의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북일반노조에서 최장기투쟁을 기록했던 경주드림센터의 471일 투쟁과 연이어 경주재활용선별장의 531일 투쟁이 승리하지 못한 여파일까? 싸워도 안된다는 패배감, 할수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안된다는 자신감 저하가 경북일반노조 집행부를 엄습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이 가중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그 대응력을 상실하며 위기가 깊어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워진 주·객관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쟁은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고, 활동이 쉬울때도 어려울 때도 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의 그 엄혹한 시절에도 노동운동은 그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왔듯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감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함께, 집행력을 보완한다는 의미와 함께 경북일반노조 활동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한계를 극복할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된 **'경북일반노조 지역지부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정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일반노조 지역지부 건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지역의 결단없이 경북일반노조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각 지역이 여전히 민주노총 중앙의 사업을 실천하는 업무와 산하조직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이는 기본사업이 되어야지 중심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또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 각 지역별로 투쟁사업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지역별 1~2명밖에 안되는 상근인력으로 경북일반노조 지역지부 건설에 투여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설사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경북일반노조 지역지부 건설' 과제는 계속 유효하되, 안되는 일을 조기에 억지로 추진하기 보다는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활동가 양성, 전략조직화 사업 등의 기초하에, 내용있게 건설해 나간다는 판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7. 불안정노동자 사업 및 지역운동에 대하여

경북일반노조는 매년 사업을 계획하고 또 평가하면서 그 활동방향으로 '**더 낮은 곳으로·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노조**'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해 왔다. 2009년 사업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경북일반노조는 비정규노동자를 열심히 조직하고 열심히 투쟁하는 노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조·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노조가 되면서, 진정한 경북지역 중소영세·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
> [경북일반노조 2009년 사업평가 중에서...]

여기서 더 낮은 곳으로란, 정규직 · 대기업 · 남성 · 정주(내국인) · 비장애 · 취업노동자 중심이 아닌 **비정규직 · 중소영세기업 · 여성 · 이주(외국인) · 장애 · 실업노동자 등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안정노동자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 경북일반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더 넓은 곳으로란 경북일반노조가 조직된 사업장 ·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 고용보장 ·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노동현장내 활동과 노동운동내의 연대에 그치지 않고, **삶과 생활의 공간인 지역차원에서 교육 · 환경 · 복지 · 정치 등 지역운동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하지 못했을시 경북일반노조는 기존의 노조들을 따라가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노조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 · 발전된 내용'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주노동자 사업은 2008년 3월 이주노동자사업부장을 선임하고, 2009년에는 이주노동자사업 담당 부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사실상 담당자의 사업으로 맡겨두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북일반노조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비정규사업을 경북일반노조에 용역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사업을 담당자에게 용역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장애 · 실업노동자 등의 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역운동과의 결합 · 실천도 마찬가지다. 지역운동과 결합하는 노동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그 실천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같이 소수의 상근인력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장 조직화, 개별사업장 교섭 · 투쟁, 현안문제 해결 및 일상활동에 매몰하는 구조와 사업방식이 계속되는 한 이는 계속 말로만의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식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되더라도 전조직적 사업이 아닌 일부 담당자의 사업에 그칠 우려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경북일반노조내에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 동지들말고도 많은 개별조합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모두 해당분야의 전문적 역량들이지만 개별화되어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하지 않던가? 소중한 역량들이 해당 부문별 운동을 넘어 '전체 지역운동'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경북일반노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래들어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지역본부의 강화 및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은 선언적 주장을 넘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경북일반노조와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분명한 바 이에 조응한 실천이 더 늦기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경북일반노조는 2008년 경북일반노조의 지역적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그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기에 그 평가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 경북일반노조의 지역적 역할에 대하여
'일반노조'하면 흔히들 중소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유력한 틀로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반노조운동을 이러한 차원에서만 행하고 있는 일반노조들이 있기에,

또 현실로 보여지는 일반노조들의 모습이 조직화 중심의 활동에 그치고 있기에 이렇게 바라보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노조운동에는 중소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일반노조운동의 정신'인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단결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도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즉,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 중소영세기업, 남성 · 여성 등을 가리지 않고 조직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렇게 조직한다는 것은 곧 기존 민주노조운동속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와 경향들을 혁신해내고 바꿔나간다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라는 주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일반노조가 이를 망각한채 그저 조직화라는 양적확대에 그치고 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일반노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북일반노조의 정식 명칭이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노조운동내에는 "지역운동"이라는 의미도 주요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의미는 단지 노동시장의 기초로서 지역이라는, 따라서 조직화하기 쉬운 장소로서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좁게는 민주노총의 산별중심 운동이 초래한 '지역연대'의 후퇴를 회복 ·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북일반노조가 사실 경북지역에서는 지역연대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지만, 경북일반노조에서 지역연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지역연대를 실천하려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제는 "지역적 역할", 나아가 "지역운동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지역적 역할'이란, 경북일반노조가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답게 경북지역 전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각종 비정규 사업영역을 주요하게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동안 경북일반노조는 자체 사업에 급급하며 경북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다른 비정규 노조들과의 일상적인 교류와 연대사업 등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이들 비정규 노조들조차 각 산별조직 소속 비정규 노조로 각개 분산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또 최근의 상황에서 보여지듯이 전국적 쟁점인 비정규법 ·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경북일반노조에서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경북지역내 각 지역협의회별로 각개 분산되어 그 실천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법 · 최저임금법 개악의 문제에 대해 성명서 발표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경북지역 전체에 이를 쟁점화하고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행했어야 함에도 경북일반노조 역시 내부 선전 · 교육 등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운동의 실천'이란, 지역은 우리 노동자 · 민중의 삶의 공간이자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지 사업장내의 교섭과 투쟁, 또 노동조합 차원의 지역연대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 민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차원의 교육 · 의료 · 주택 · 물가 · 교통 · 생태 · 문화 ·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과 투쟁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실천하지도, 또 실천할 엄두도 내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경북일반노조내에서 지역운동의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북일반노조 2008년 사업평가 중에서...]

Ⅳ. 경북일반노조가 향후 나아갈 방향

많은 내용들이 제기되었고 평가되었다. 제기된 내용들은 크게 ①관점과 인식, 자세의 문제 ②단기적으로 바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 ③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제로 구분할 수 있겠다. 매년 반복되며 평가된 내용들도 있고 새롭게 제기된 내용들도 있다. 문제는, 제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고 실천하는가일 것이다.

앞에서 경북일반노조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다. 경북일반노조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현 중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미비 혹은 패배감·무력감에 젖어 퇴보의 길을 걷거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소소한 개선 등에 그치며 현재와 같이 하나의 비정규직 노조로 유지되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한계 극복을 통해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역할을 하거나 일 것이다. 어느 길로 가게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체들의 실천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 희망에 대하여
>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노신(魯迅)의 글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북일반노조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조직의 양적 확대보다는 조직의 질적·내용적 강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의 동시 진행이라는 경북일반노조의 사업방향이 특히 후자에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반성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조직규모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할 수 있는 사업은 더욱 많고 또 그 영향력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은 빈채 덩치만 큰 또 하나의 노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직확대에 앞서 조직의 내용과 질을 알차게 채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극단적으로 2011년에는 조직화에 나서지 않고, 조직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사업에 있어 기초가 되는 '올바른 활동가 양성'에 전력투구하면서, 이와함께 조합원 의식역량강화를 위한 일상활동 프로그램의 기획·실천, 중장기적 전략조직화 사업준비, 교섭구조·의제 등에 대한 대안마련 등 향후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더 낮은 곳으로·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북일반노조는 그동안 이주·장애·실업노동자 등에 대한 사업, 지역운동과 결합하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만 했지 사실상 제대로 된 실천은 없었다. 경북일반노조가 기존 노조

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실리주의적인 비정규직 노조로 고착화된다면 경북일반노조의 존재 의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질적 강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조합원 의식역량 강화'를 토대로, 더 낮은 곳으로·더 넓은 곳으로 향하는 사업이 경북일반노조의 중심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산이주노동자센터를 경북센터로서의 축으로 삼으면서 경주·포항·구미·북부 등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운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각 지역에는 관변단체·시민단체를 넘어 대안운동을 모색하는 다양한 영역의 부문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운동과 결합하는 노동운동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북지역단일노조로의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2010년 Time-Off에 이어 2011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업종별 조직력은 이완될 것이고, 기업별(사업장별) 노사담합 및 회귀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일반노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민주노조운동 전체, 특히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는 경북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적 변화를 추동함과 함께, 조직적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북지역단일노조'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경북일반노조가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의 유력한 틀이었다면, '경북지역단일노조'는 경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은 그 형태(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기업별노조도 산별노조도 일반노조도 마찬가지) 해당시기 노동자들이 가장 잘 단결할 수 있고, 자본과 권력에 맞서 가장 잘 투쟁할 수 있고, 또 가장 잘 연대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북일반노조는 언제든지 그 깃발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극복 및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산별노조도 일반노조도 아닌 '지역단일노조'(어찌보면 확대발전된 지역일반노조)라 보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2월>

◎ 경북일반노조 5년 개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 사업계획	.	•조직의 안정적 정착 •일상활동 강화 통한 현장위원회 강화 •승리하는 교섭 투쟁 •지역연대 기초로 전국연대 적극 실천	•조직확대의 기초 마련 •조직운영의 체계화 내실화 통한 조직강화 •승리하는 투쟁 •지역연대 및 전국연대 전국투쟁 복무	•조직목표 500명 •이주노동자 조직화 •조직의 질적 내용적 강화 •승리하는 투쟁기풍 •지역연대 선도 전국연대 실천	•장기투쟁 승리 •기획조직화 500명 목표 •이주노동자 사업 강화 •조직의 질적강화 •지역역할 준비	•장기투쟁 승리 •1천명 조직화 기반 마련 •조직체계 내용 정비 •이주노동자 사업 강화 •교육사업 강화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주요 투쟁	.	•경주CC •동화개발 •진보병원 •동국대학교미화 •경상병원환자식당 •신라국악예술단	•신라국악예술단 •우향고속관광 •경주드림센터 •포항시립예술단	•경주드림센터 •포항시립예술단 •경주CC •경주교육문화회관 •영주시청미화 •세일개발	•경주CC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경주재활용선별장 •상주시청미화 •동국대학교미화 •토비스콘도	•경주재활용선별장 •토비스콘도 •경상병원환자식당미화 •대영금속
집행부	1기 출범 위 원 장: 최해술 사무국장: 오세용	.	2기 출범 위 원 장: 최해술 사무국장: 오세용	.	3기 출범 위 원 장: 최해술 사무국장: 조창수	.
조직화	7개 138명 →현재 3개 59명	6개 149명 →현재 3개 44명	9개 203명 →현재 5개 137명	5개 90명 →현재 無	7개 230명 →현재 5개 157명	2개 40명 →현재 2개 40명
수 입	15,470,850원	46,507,446원	70,958,186원	112,479,274원	133,118,270원	65,296,880원
지 출	14,623,420원	45,662,190원	76,989,825원	108,415,310원	129,007,071원	61,933,209원
주요 특징	•경북일반노조 출범 •동국대학교미화 최초 가입 •일반노협(준) 가입	•동국대학교 미화 지역연대 파업 •지역지부 계획수립 •정기산행(월 1회) •경북본부 회의 결합	•경상병원환자식당 및 경산노인병원 전원 정규직화 •이주노동자 경북 결의대회 •교섭위원 수련회 •비정규 가족캠프 시작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계획 수립 •이주노동자사업부장 선임 •첫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대회 • 경 주 드 림 센 터 471일 투쟁 및 용역깡패 투입	•경주재활용선별장 지역연대 파업 •위원장 정책교육국장 구속 •이주노동자사업 담당 부위원장 선출 •지역지부(준) 가동 •정책교육국 신설 •정책교육국장 단식 51일	•경주재활용선별장 최장기 531일 투쟁 •창립 5주년 설문조사 •정책교육국장 사퇴
주요 연대투쟁	•칠곡환경 투쟁 •비정규법쟁취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경상병원 투쟁 •일성콘도 투쟁	•이랜드 투쟁 •한미FTA 투쟁 •경북 도보순회 투쟁	•진방 DKC 투쟁 •경북 도보순회 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경북 도보순회 투쟁	•발레오만도 투쟁 •KEC 투쟁 •경북 도보순회 투쟁

<참고자료> 경북지역일반노조 5년의 경과 및 현황

1. 조직현황 (2010. 12월초 현재)

구분	시 기	사업장(현장위원회)	지역	조합원 수				고용형태				
				최초	현재	남	여	정규	계약	용역	기타	계
1	2005. 06월	개별조합원	경북	14	49	27	22	.	.	.	49	49
2	07월	동국대학교미화	경주	41	42	8	34	.	.	42	.	42
3	07월	제일건업	경주	4	×	.	.	.	.	.	.	.
4	07월	동국대학교행정조교	경주	40	×	.	.	.	.	.	.	.
5	08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경주	9	×	.	.	.	.	.	.	.
6	09월	동국대학교기숙사미화	경주	8	×	.	.	.	.	.	.	.
7	10월	경주CC	경주	14	4	4	.	4	.	.	.	4
8	11월	경상병원환자식당	경산	22	13	.	13	13	.	.	.	13
9	2006. 02월	진보병원	청송	37	×	.	.	.	.	.	.	.
10	03월	동화개발	포항	10	×	.	.	.	.	.	.	.
11	05월	경산노인병원	경산	55	17	4	13	.	.	17	.	17
12	07월	칠곡휴게소	칠곡	20	×	.	.	.	.	.	.	.
13	11월	안동대학교미화	안동	22	24	.	24	.	.	24	.	24
14	12월	세천향예술단	경주	5	3	.	3	3	.	.	.	3
15	2007. 02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	15	×	.	.	.	.	.	.	.
16	04월	경주드림센터시설	경주	13	×	.	.	.	.	.	.	.
17	04월	경상병원미화	경산	7	1	.	1	.	.	1	.	1
18	05월	포항시립예술단	포항	16	32	16	16	.	32	.	.	32
19	05월	우향고속관광	구미	12	×	.	.	.	.	.	.	.
20	07월	대아고속해운	포항	60	57	51	6	57	.	.	.	57
21	09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경주	22	14	8	6	.	.	14	.	14
22	11월	영주시청미화	영주	46	33	33	.	.	33	.	.	33
23	11월	경주CC구내식당	경주	12	×	.	.	.	.	.	.	.
24	2008. 01월	안동시설관리공단	안동	8	×	.	.	.	.	.	.	.
25	04월	세일개발	성주	15	×	.	.	.	.	.	.	.
26	06월	영천마야병원	영천	15	×	.	.	.	.	.	.	.
27	08월	군위농협유통	군위	50	×	.	.	.	.	.	.	.
28	12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경산	2	×	.	.	.	.	.	.	.
29	2009. 01월	경주재활용선별장	경주	25	×	.	.	.	.	.	.	.
30	02월	토비스콘도	경주	21	×	.	.	.	.	.	.	.
31	02월	상주시청미화	상주	85	88	86	2	.	88	.	.	88
32	03월	상주시소각장	상주	11	14	14	.	.	.	14	.	14
33	04월	대영금속	경산	54	46	42	4	46	.	.	.	46
34	10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경주	27	1	.	1	.	.	1	.	1
35	12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포항	7	8	3	5	.	.	8	.	8
36	2010. 02월	(Y사)	Y	5	5	5	.	.	5	.	.	5
37	07월	경산노인병원간병	경산	35	35	.	35	.	.	35	.	35
계		17개 사업장	6개 시군	864	486 (100.0)	301 (61.9)	185 (38.1)	123 (25.3)	158 (32.5)	156 (32.1)	49 (10.1)	486 (100.0)

2. 투쟁현황

구분	투쟁 시기	사업장(현장위)	내 용	투쟁 현황
1	2006. 04월~07월	경주CC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천막농성 89일** 지역연대집회(1천명)
2	07월~11월	동화개발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123일 농성투쟁** 등
3	08월	진보병원	부당해고 등	**천막농성 18일** 등
4	09월~10월	동국대학교미화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천막농성 61일** **지역연대파업** 등
5	12월	경상병원환자식당	정리해고	식당 점거(4시간) 등
6	12월~2007. 04월	신라국악예술단	정리해고, 폐업 등	**천막농성 20일** 등
7	2007. 05월~08월	동국대학교미화	최저임금 쟁취 등	주1회 피켓팅 등
8	06월	안동대학교미화	최저임금 쟁취 등	전면파업 3일 등
9	07월~10월	우향고속관광	노조탄압, 폐업·해고 등	주1회 피켓팅 등
10	08월	경주CC	비정규직 문제 등	부분파업(5일) 등
11	09월~2008. 12월	경주드림센터	노조탄압	**천막농성 471일** 용역깡패 투입 **지역확대간부파업** 등
12	12월~2008. 04월	포항시립예술단	단체협약	4개월여 피켓팅 등
13	2008. 01월~04월	경주CC	부당해고	3개월여 피켓팅 등
14	03월~04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부당해고	1개월여 피켓팅 등
15	06월~10월	영주시청미화	노조불인정	**천막농성 144일** 등
16	06월~09월	세일개발	부당해고·노조탄압	**천막농성 99일** 등
17	07월~09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단체협약	1개월半 부분파업 등
18	11월	동국대학교미화	최저임금·단체협약	20여일 피켓팅 등
19	12월~2009. 03월	경주CC	노조탄압	4개월여 피켓팅 등
20	2009. 01월~02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부당해고	1개월여 피켓팅 등
21	04월~2010. 10월	경주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부당해고	**천막농성 531일** **지역연대파업(4차례)** 최장기투쟁 패배
22	07월	상주시소각장	다단계위탁	전면파업 3일 등
23	08월	대영금속	노조탄압	전면파업 4일 등
24	08월~09월	대아고속해운	노조탄압	1개월여 피켓팅 등
25	08월~12월	상주시청미화	민간위탁, 고용안정 등	**천막농성 108일** 등
26	10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구조조정, 고용안정 등	전면파업 17일 등
27	10월~2010. 11월	토비스콘도	노조탄압	전면파업 83일 등
28	**2010. 02월~**	**경상병원환자식당+미화**	**고용승계(폐업~매각)**	**투쟁중~** **컨테이너농성 등**
29	05월~06월	대아고속해운	고용보장	1개월여 피켓팅 등
30	06월~11월	안동대학교미화	원청 책임성	학내집회, 피켓팅 등
31	08월~09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사망자 진상규명 및 처벌	기자회견, 선전전 등
32	**10월~**	**대영금속**	**부당해고, 노조탄압**	**투쟁중~** **피켓팅, 선전전 등**

3. 교섭현황

구분	시 기	사업장(현장위)	내 용	비고(기간)
1	2005. 07월~2006. 05월	동국대학교미화	임시협약, 단체협약(체결)	10개월
2	11월~2006. 11월	경주CC	임시협약, 단체협약(체결), 임금인상	12개월
3	12월~2006. 05월	경상병원환자식당	임시협약, 단체협약, 임금인상	5개월
4	2006. 03월~08월	진보병원	단체협약, 임금인상	5개월
5	04월~06월	동화개발	단체협약	2개월
6	07월~11월	경산노인병원	단체협약, 임금인상	4개월
7	11월~2007. 08월	동국대학교미화	단체협약(갱신), 최저임금	9개월
8	12월~2007. 04월	경산노인병원	보충협약	4개월
9	12월~2007. 02월	경주CC	보충협약	2개월
10	2007. 02월~05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단체협약	3개월
11	03월~06월	안동대학교미화	단체협약, 최저임금	3개월
12	04월~2008. 12월	경주드림센터	단체협약, 임금인상, 노조탄압	20개월
13	04월~06월	경상병원미화	임시협약, 임금인상	2개월
14	**05월~**	**포항시립예술단**	**단체협약(체결)**	**진행중**
15	05월~08월	경주CC	임금인상, 비정규직	3개월
16	06월	우향고속관광	임시협약	1개월
17	06월~08월	경산노인병원	임금인상	2개월
18	07월~11월	대아고속해운	임시협약, 단체협약	4개월
19	08월~10월	경상병원환자식당	보충협약	2개월
20	09월~2009. 03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단체협약(체결)	18개월
21	10월	경상병원미화	임시협약	1개월
22	10월~2008. 01월	경산노인병원	단체협약(갱신)	3개월
23	11월~2008. 05월	경주CC	단체협약(갱신), 부당해고	6개월
24	12월~2009. 02월	영주시청미화	단체협약(체결)	14개월
25	2008. 01월~02월	경상병원미화	단체협약(체결) 예정	1개월
26	02월~04월	경상병원환자식당	현안문제	2개월
27	03월~06월	안동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3개월
28	03월~06월	대아고속해운	임금협약	3개월
29	04월~11월	세일개발	단체협약(체결), 부당해고	7개월
30	09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31	09월~11월	경산노인병원	임금협약	2개월
32	09월~2009. 04월	대아고속해운	임금체계개편 및 단체협약	7개월
33	10월~2010. 03월	경상병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17개월
34	2009. 01월~2010. 10월	경주재활용선별장	단체협약(체결) 및 민간위탁, 부당해고	22개월
35	01월~10월	경주CC	임금협약	10개월
36	02월~2010. 11월	토비스콘도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노조탄압	22개월
37	02월~12월	상주시청미화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10개월
38	03월~08월	상주시소각장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5개월
39	05월~08월	대영금속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	4개월
40	05월~09월	안동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4개월
41	06월~10월	대아고속해운	임금협약	4개월
42	07월~09월	경산노인병원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3개월
43	07월~09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임금협약	2개월
44	09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45	09월~11월	세일개발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46	2010. 01월~02월	대영금속	임금협약	2개월
47	01월~07월	경주CC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7개월
48	**02월~**	**경상병원환자식당+미화**	**고용승계**	**진행중**
49	02월~07월	상주시소각장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5개월
50	02월~10월	영주시청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8개월
51	03월~07월	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4개월
52	03월~11월	안동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8개월
53	04월~11월	대아고속해운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8개월
54	05월~08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단체협약(체결)	3개월
55	06월~11월	경산노인병원	임금협약	4개월
56	06월~11월	상주시청미화	임금협약	5개월
57	**08월~**	**경산노인병원간병**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진행중**
58	**08월~**	**동국대경주병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진행중**
59	09월~11월	동국대학교미화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	2개월
60	**11월~**	**대아고속해운**	**단체협약(갱신)**	**진행중**
61	**11월~**	**대영금속**	**단체협약(갱신)**	**진행중**

4. 재정현황

구 분		2005년 (6월~12월)	2006년 (1월~12월)	2007년 (1월~12월)	2008년 (1월~12월)	2009년 (1월~12월)	2010년 (1월~6월)
수입 지부	조합비	4,247,550 (27.5)	20,358,656 (48.8)	35,199,930 (49.6)	59,781,174 (53.2)	85,265,199 (64.1)	**44,936,880** (68.8)
	지원금	1,479,000 (9.6)	9,055,180 (19.5)	14,600,000 (20.6)	23,100,000 (20.5)	9,400,000 (7.1)	**4,800,000** (7.4)
	후원금	8,219,300 (53.1)	10,897,000 (23.4)	14,390,000 (20.3)	21,296,000 (18.9)	24,670,000 (18.5)	**8,410,000** (12.9)
	기타수입	1,525,000 (9.8)	6,196,610 (13.3)	6,768,256 (9.5)	8,302,100 (7.4)	13,783,071 (10.3)	**7,150,000** (10.9)
	계	**15,470,850** (100.0)	**46,507,446** (100.0)	**70,958,186** (100.0)	**112,479,274** (100.0)	**133,118,270** (100.0)	**65,296,880** (100.0)
지출 지부	운영비	9,877,040 (67.5)	20,407,850 (44.7)	35,036,350 (45.5)	49,309,260 (45.5)	59,000,970 (45.7)	**30,806,240** (49.7)
	사업비	4,746,380 (32.5)	25,254,340 (55.3)	41,953,475 (54.5)	59,106,050 (54.5)	70,006,101 (54.3)	**31,126,969** (50.3)
	계	**14,623,420** (100.0)	**45,662,190** (100.0)	**76,989,825** (100.0)	**108,415,310** (100.0)	**129,007,071** (100.0)	**61,933,209** (100.0)

※ 투쟁기금 현황

구 분	2005년 (6월~12월)	2006년 (1월~12월)	2007년 (1월~12월)	2008년 (1월~12월)	2009년 (1월~12월)	2010년 (1월~6월)
수입 지부	825,000	10,959,800	16,385,300	93,912,300	15,545,000	**4,130,000**
지출 지부	.	4,074,500	8,000,000	50,058,379	31,991,640	**31,578,520**
잔 액	825,000	6,885,300	8,385,300	43,853,921	27,407,281	**-41,239**

※ 2010년 재정현황, 투쟁기금현황은 2010년 상반기 결산결과임.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평가(안)

오 세 용 ‖ 전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2011년 2월)

Ⅰ. 들어가며

15명 집단해고, 3명 구속, 16명 집행유예, 531일간의 천막·컨테이너 농성, 4차례의 지역총파업 결의대회, 51일간의 단식농성과 지역 노조대표자 집단 릴레이단식, 수십차례의 집회·결의대회, 2차례의 3보1배 투쟁, 매일 진행된 피켓시위, 경주경찰서 1인시위.....
2009년~2010년 경주지역에서 총력 집중해 전개했던 경북일반노조의 재활용선별장 투쟁은 수많은 투쟁을 뒤로한채 농성 531일만인 2010년 10월 24일 경주시청앞에 설치했던 컨테이너 농성장을 철수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경북일반노조에서 최장기 투쟁을 기록한 투쟁이었음에도 경주시의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도, 15명 노동자들의 부당·집단해고도 철회시켜내지 못한 패배한 투쟁이어서일까? 농성장 철수는 처음 투쟁을 시작할때와는 달리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은 투쟁이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를 떠나 많은 측면에서 교훈을 던져준 투쟁이었다. 현시기 비정규투쟁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경북일반노조의 장기투쟁 전략·전술적 측면에서도, 지역연대와 관련해서도,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지역의 역량이 총 집결했던 주요한 투쟁이었음에도, 투쟁이 끝난지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어떤 공식단위에서도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시 현안투쟁에 빠져든 경북일반노조의 조건과 장기간 지도부 공석상태에 놓여있는 민주노총 경주지부의 조건이 평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경북일반노조의 무리한 투쟁이었느니, 누구누구의 아집으로 투쟁을 말아먹었느니, 몸대주고 돈대줬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지역연대는 없다느니...”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술자리 안주삼아 회자되었고, 이 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며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은 잊혀진 투쟁이 되어가고 있다.

늦었지만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평가(안)을 제출한다. 이는 경북일반노조 차원에서도, 그리고 경주지역 차원에서도 투쟁에 대한 감정적·책임회피성 평가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토론을 통해 그 교훈을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잘못된·패배한 과거 투쟁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민주노조운동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평가(안)은 조합원 중심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동지들의 치열한 평가·토론을 기대해 본다.

Ⅱ. 주요 투쟁일지

2009. 01. 02. 경주시,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에게 3개월 근로계약 강요 작업거부(~5일까지)
06. 재활용선별장 노동자 경북일반노조 가입 설명회 및 가입(22명)
13. 경북일반노조, 경주시와 상견례 단체교섭 시작
03. 23. 경주시,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안 상정(예결특위 거부됨)
04. 02. 경북일반노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08. 경주시, 경주시의회에 민간위탁안 또다시 상정
10. 경북일반노조와 지역 동지들 경주시의회 봉쇄투쟁해 민간위탁안 1개월 유보
18. 재활용선별장 쟁의행위찬반투표(97.7% 찬성)
22.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저지 투쟁 선포식
05. 07. 경북일반노조와 지역 동지들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봉쇄투쟁
08. 경북일반노조와 지역 동지들 경주시의회 진입투쟁 : 경찰폭력, 민간위탁안 통과
12. 경주시청앞 천막농성 돌입
06. 03.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철회 경주지역 총파업 결의대회(1차)
11. 경주시,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와 민간위탁 위수탁계약 체결
30. 경주시, 민간위탁 거부한 재활용선별장 노동자 15명 집단해고
07. 01.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철회 경주지역 총파업 결의대회(2차)
22.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철회 경주지역 총파업 결의대회(3차) 및 3보1배 투쟁
28.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 삭발 및 단식투쟁 돌입(~9. 16.까지 51일간)
08. 12. 경주지역 노조 대표자 집단단식 및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9. 4.까지 24일간)
19.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철회 경주지역 총파업 결의대회(4차) 및 3보1배 투쟁
10. 09. 경주시 천막농성장 침탈 및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 구속
21. 경주시청앞 컨테이너농성장 설치 및 경북지역 도보순회투쟁단 투쟁
11. 06. 경북일반노조 위원장 구속
12. 29.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 석방(집행유예)
30. 경북일반노조 위원장 석방(집행유예)
2010. 01. 21. 2010년 투쟁 선포식
22. 경주시 컨테이너 농성장옆 천막 침탈 및 규탄 결의대회
03. 27. 코오롱마라톤 투쟁 피켓팅
04. 17. 술과떡잔치 행사장 피켓팅
04. 26.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역 도보순회투쟁 집중(~4. 30.까지)
05. 10. 6.2 지방선거 대응투쟁 : 백상승 경주시장후보 낙선투쟁(~6. 1.까지)
07. 01. 최양식 신임 경주시장 취임식 피켓팅
10. 12. 경주시, 경주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취업알선안 최종 제시, 노조 거부
24. 경주시청앞 컨테이너 농성장 철수 531일간의 투쟁 마무리
2011. 02. 22. 재활용선별장 투쟁 불구속자 16명 전원 집행유예 선고

Ⅲ. 투쟁 경과

1. 경주재활용선별장 개요

경주시에서 재활용선별장이 가동된 것은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시작된 1999년 부터였다. 이때는 재활용선별장이 경주시내 동천동 현 환경복지회관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6년 3월 천군동 쓰레기매립장내에 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하면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다.
이전하게 된 이유는 분리·배출되어야 할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까지 섞여 들어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재활용선별장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짐작케 해준다.[4)]
작업조건은 그렇다치고 노동조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경주시 소속이었음에도 주5일제는 물론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토요일은 물론 국공휴일과 명절에도 모두 평일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고[5)],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으로 책정되어 2009년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1일 34,000원으로 월 급여가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였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모두 26명. 이중 40~50대의 여성이 20명이고 6명이 남성이었다. 남성중 4명은 20~30대의 젊은 축으로 이들은 지게차등 장비를 담당했다. 경주시내에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내로 옮겨오면서 변화된 것은 이전에는 모두 경주시내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경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재활용선별장 이전에 따른 합의사항이기도 한 것이었는데,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이후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되어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 오도엽('밥과 장미',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등을 쓴 작가)이 2009년 경주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하고 쓴 르포『비정규법 해고위기 경주재활용선별장 노동자』를 보면 작업환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덤프에 실려온 재활용더미 자루가 야적장에 우르르 쏟아집니다. 때를맞춰 앞치마를 두른 이들이 몰려듭니다. 손에 쥔 칼과 낫을 들고 자루를 쨉니다. 자루에 담긴 내용물이 우르르 바닥에 흩어집니다. 음료수, 캔, 파지, 장판, 유리병... P씨는 순간 욱,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썩어가고 있는 고양이 시체가 참혹한 모습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P씨는 이곳 재활용선별장에서 십오년을 일했건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루를 칼로 쨀때마다 두려움에 사로 잡힙니다. 뭉치가 큰 까만 비닐봉지가 나오면 섬뜩합니다. 그곳에서 혹 신문기사에서 보던 토막난 시체가 튀어나올까봐.
쌓아둔 재활용 무더기 앞에 쪼그려 앉아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나눠 뒤로 밀어대던 H씨도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까만 비닐봉지 찢긴 틈 사이로 구더기가 바글바글 기어 나옵니다. 누군가가 재활용 자루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렸습니다. 며칠을 푹 삭았는지 고약한 냄새가 속을 뒤집습니다."

5) "토요일 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국경일이나 명절 연휴때도 출근을 해야 했는데 누굴 탓하겠냐며 P씨는 한숨을 쉽니다."
"맏며느리인 H씨는 명절 연휴때도 남들처럼 쉬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를 찾아 갔습니다. 명절 치다꺼리 하기 싫어 일터에 가는 것 아니냐는 시누이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밥줄'을 지키려고 일했습니다."
...오도엽의『비정규법 해고위기 경주재활용선별장 노동자』중에서

2. 경북일반노조 가입 및 경주시와의 교섭(2009년 1월~3월말)

경주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은 경주시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해오고 있는 경주시의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이었다.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넘게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매년초에 작성되는 1년단위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만 60세까지의 정년도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경주시는 1년단위 계약이 아닌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법 시행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경주시는 무기계약 T/O가 없어 그렇게할 수 없기에 6월말까지만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1차로 3월말까지, 2차로 6월말까지 계약하고 모두 내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난생처음 일손을 놓았다.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작업을 거부하며 단기 근로계약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고, 결국 고용을 보장받는 길은 노동조합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2009년 1월 6일 경북일반노조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26명의 재활용선별장 노동자중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노동자 4명을 제외한 22명이 가입하게 된 것이다.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최초 상담시 재활용선별장 문제에는 인근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관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주민지원협의체와 논의해 해결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고용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나오며 발을 뺌으로써 노조가입을 받고 경주시와의 단체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1월 13일부터 시작된 경주시와의 교섭이 순탄할리 없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과의 형식적 교섭경험밖에 없었던데다가, 하인(?)처럼 부렸던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이 경북일반노조와 함께 대등하고 당당한 자세로 교섭을 진행하자 당황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함께 내용적 진전은 더욱 없었다. 임금성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안된다", 노동시간·휴일휴가 등의 요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된다",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등 도대체 되는 것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법 때문에 안된다. 총액인건비제로 무기계약 T/O가 없기 때문에 6월말부로 해고할 수 밖에 없다. 방법이 있으면 노조에서 알려달라"며 고용보장을 할 수 없음을 고수했다.
그리고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09년 3월 23일 경주시는 노조와는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경주시의회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안[6]을 전격 상정하게 된다.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중 타지역 사례조사를 통해 '민간위탁'이라는 꼼수를 발견해 낸 것이었다.

---

6)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비정규법 때문이라는 것을 감춘채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재활용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하며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원가 절감 등 시장경제 원리 도입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경주시의 행태에 분노가 치미는 일이었다.

3. 민간위탁 저지 투쟁(2009년 3월말~5월초)

경주시가 전격적으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카드를 꺼내든 2009년 3월말부터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은 '민간위탁 저지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해 진행하게 된다.

경북일반노조에서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곧바로 4월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4월 10일에는 민간위탁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경주시의회 봉쇄투쟁을 전개한다. 이날 봉쇄투쟁은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간위탁안이 처리되는 것은 막아낸다. 그러나 완전 철회시켜내지는 못한채 1개월간 유보하는 것으로 시간을 버는데 그치고 마는데, 경주시에게는 1개월후 경주시의회 개최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경주시청사를 완전봉쇄하게 하는 학습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한달! 이제 본격적인 민간위탁 저지투쟁이 전개된다.

경북일반노조에서는 4월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7]후 바로 다음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7.7%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조합원 교육, 매일 경주시청앞 피켓시위, 대시민 선전전,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 의장 항의방문, 서명운동, 집단 항의팩스, 경주지역 노조대표자 42명 연서명의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신문광고 등과 함께 민간위탁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4월 22일), 경주시청 규탄 항의집회(4월 28일)를 개최하고, 5월 4일부터는 경주시청 로비앞 항의농성 투쟁을 전개하는 등 쉼없는 투쟁을 이어간다.

경북일반노조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저지투쟁을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투쟁 ▲비정규법의 폐해를 바로잡는 투쟁 ▲신자유주의 사회공공성 후퇴를 저지하는 투쟁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 백상승 경주시장과 그 들러리인 한나라당 일색 경주시의회[8]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처리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5월 7일에는 하루종일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봉쇄투쟁을 전개한데 이어, 경주시의회가 열리는 5월 8일에는 경주시청앞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 진입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이제 경주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저지투쟁은 경북일반노조 차원을 넘어 경주지역, 아니 경북지역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열리는 5월 8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이미 전날부터 경찰버스 10여대로 차벽을 쌓아 경주시청사를 꽁꽁 에워싸 봉쇄한 상태였다. 4월 10일과 같은 경주시의회 봉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기자회견후 대표단들은 경주시의회 의장 면담과 경주시의회 방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었다. 무조건 안된다, 해산하라는 말 뿐이었다.

이에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참가 대오 150여명은 경찰버스 차벽을 넘어 경주시의회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의 무차별 폭력이었다.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이 경찰의 폭력으로 척추뼈가 부러져 2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등 수많은 동지

---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으로 '노조는 민간위탁 수용, 경주시는 민간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노조에서 수용을 거부하여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8) 경주시의회는 한나라당 20명, 민주노동당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졌다.

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9] 그리고 이 시간, 경주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임시회를 개최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안을 전원찬성으로 처리하고 만다.

4. 처절한 민간위탁 철회 투쟁(2009년 5월초~9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경주시는 민간위탁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라는 법인을 설립해 2009년 6월 11일부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5월말에는 조합원들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지원협의체' 소속 조합원들이 가족들의 압력에 못이겨 7명이 노조를 탈퇴하고 민간위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거부한 15명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30일부로 해고조치를 취하고 만다.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지역차원으로 확대된 민간위탁 철회투쟁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철회를 위한 경주지역 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5월 12일부로 경주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장기·결사투쟁의 결의를 높인다. 이와함께 기자회견, 결의대회, 촛불문화제, 자전거대행진, 대시민선전전 등 평균 주1회 이상 확대간부이상이 참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2009년 5월초부터 9월까지 5개월여 동안 진행된 투쟁을 보면,

① 천막농성 : 2009년 5월 12일부터 진행
② 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 6월 3일~8월 19일까지 금속노조의 파업과 연계한 총파업 결의대회 4차례 개최(매번 1,500여명 참석)
③ 지역 집중집회 : 평균 주 1회씩의 지역 확대간부 결의대회 개최
④ 단식농성 :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의 단식(7월 28일~9월 16일까지 51일), 지역 노조 대표자들의 집단 릴레이 단식(8월 12일~9월 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의장의 동조단식(8월 20일~9월 4일)
⑤ 피켓시위 : 매일 경주시청앞 출퇴근 피켓팅 및 경주경찰서 1인시위
⑥ 대시민 선전전 : 월 1회 시민선전물 발행 대대적 선전전 및 방송녹음을 통한 매일 방송차 선전전
⑦ 3보1배 투쟁 : 7월 22일 경북일반노조 집행부, 8월 19일 지역 노조대표자들의 3보1배 투쟁(경주역→경주시청)
⑧ 기타 : 수차례의 경주시장·경주시의회 의장 항의방문 면담, 언론(방송) 인터뷰 등

그야말로 안해본 것 없이 총력을 다한 처절한 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여성조합원들은 7월 해고이후 시작된 상복투쟁시 서러움에 눈물을 쏟으면서도 흔들림없이 투쟁에 나섰고, 지역동지

9) 2009년 5월 8일 투쟁으로 경찰과 검찰은 재활용선별장 전조합원 15명을 포함 30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대량 기소를 자행하였고, 그 결과 구속 3명, 집행유예 16명, 벌금 1명, 기소유예 14명을 결과했다.
반면 경찰의 폭력에 대한 노동자측의 고소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폭력을 당한 자는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 자는 없다는 기막힌 결정이었다.

들의 지원·연대도 이어졌다. 매일 천막농성장을 사수하는 것은 물론, 주 1회 지역 집중집회에는 매번 100여명의 노조간부들이 참가했고, 4번의 지역총파업 결의대회에는 각 1천5백여명의 조합원들이 결집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에서는 반노동자적 사설로 비난을 퍼붓기도 할 정도였다.[10)]

그러나 이렇게 투쟁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지역차원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바로 '민간위탁 철회'라는 투쟁기조에 대한 논란이었다.

논란은 5월~6월 일면 투쟁과 함께 일면 경주시와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내부논의도 없이 '민간위탁을 수용한 전제하의 고용승계·노동조건개선·노조활동보장' 등의 내용으로 교섭이 진행된데 있었다. 이 문제는 7월들어 공개화·공식화되며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의 주장은 "투쟁의 기조는 '민간위탁 철회'이고 이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또하나의 주장은 "이미 경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안이 통과되어 계약까지 이루어진만큼 이를 철회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에 민간위탁안을 수용한 속에서 고용승계와 노동조건개선·노조활동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7월~8월 개최된 지역대책위 회의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대표자회의에서는 매번 "조직력·투쟁력이 없어 어쩔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수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외면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 같기에 투쟁으로 민간위탁을 철회시켜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위탁 철회는 원칙일 뿐이고 현실적 조건에 맞게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되며 부딪쳤다.

'민간위탁 철회' 투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북일반노조에 대해 '지역 대표자회의에서 다르게 결정되면 경북일반노조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쪽에서는 민간위탁을 철회시켜내기 위해 처절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1천여명이 넘는 지역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 결의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아닌 것으로 마음먹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투쟁이 될리 없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주시에서는 민간위탁 철회불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나갔고, 심지어 누구누구와는 교섭이 어렵다며 노조측 교섭위원을 지명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다행스럽게 투쟁의 주체인 재활용선별장 조합원들이 '민간위탁 철회'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투쟁이 전개될 수는 있었지만, 민간위탁을 철회시켜내기 위해 이전에 진행해 온 투쟁보다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채 정책교육국장의 단식농성이 2009년 9월 16일 51일만에 중단된 후 투쟁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

10) "민주노총 '막가파식 파업'...어디가 끝인가
민주노총의 파업 양상이 정말 가관이다. 이 단체 산하 금속노조는 그제 1,200명의 조합원을 끌고 경주 도심에서 연대파업을 벌였다. 경주시가 재활용품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근로자 15명을 정리해고 했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 2009년 8월 21일자 중앙일보 사설중에서.

5. 장기화되는 투쟁...531일만의 투쟁 포기(2009년 9월~2010년 10월)

2009년 9월들어 지역연대의 핵심 대오였던 금속노조경주지부의 각 지회는 9월말 실시되는 자체 임원선거에 집중하게 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9월 28일 경북일반노조에서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은 내리고 만다.[11)]

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저들의 공세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10월 9일 경북일반노조 정책교육국장과 민주노총 경주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정책교육국장이 구속[12)]된다. 바로 이날 경주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경주시청앞 천막농성장을 침탈한다. 11월 6일에는 경북일반노조 위원장과 재활용선별장 수석현장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위원장이 구속된다. 이에대해 지역에서는 구속자 석방촉구 및 천막농성 철거규탄 기자회견(10월 12일), 컨테이너 농성장 설치 및 경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투쟁(10월 21일), 조합원 1인 1만원 투쟁기금 결의(11월) 등으로 대응하나 한풀꺽인 투쟁분위기를 다시 세워내기는 어려웠다.

이를 반영하듯 2009년 연말에 진행된 경주시와의 교섭에서 제시된 노조측안은 “민간위탁을 전제한 가운데 2010년 6월말까지 15명 전원의 재활용선별장 복직”으로 더욱 후퇴된 것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경주시도 더욱 후퇴한 안을 제시하는데, “5명만 재활용선별장에 우선 고용하고 10명은 경주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2010년 12월말까지 고용한다”는 것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9년말 위원장과 정책교육국장이 석방되고, 2010년 새해를 맞아 1월 21일 신년투쟁 선포식을 가지며 다시 투쟁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다. 내부 투쟁동력의 저하와 함께 지역차원에서는 경신공업의 구조조정 문제, 한국펠저의 공장이전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2월 16일부터 경주지역의 핵심노조인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에 맞선 힘겨운 투쟁이 전개되면서 재활용선별장 투쟁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투쟁사업장들을 모아 지역공동투쟁전선으로 묶어 대응하고자 했으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속노조경주지부는 그럴 여유가 없었고,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2009년말의 의장 선거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시비로 지도부가 공석 상태였다.

2010년 4월말 경북지역 도보순회투쟁을 발레오만도와 재활용선별장 투쟁 지지·엄호를 위해 경주지역에서 1주일간 집중하기도 하고, 또 5월부터는 6.2 지방선거에 또다시 출마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한 선거기간 압박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상황을 반전시켜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해결은 요원한 채 컨테이너 농성장 사수, 매일매일의 출퇴근 피켓팅, 투쟁사업장 연대만이 지속되자 조합원들은 생계문제와 투쟁승리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명두명 떨어져나가기 시작해 상시 결합하는 조합원은 1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09. 9. 28), 중앙노동위원회(2009. 12. 29), 서울행정법원(2010. 10. 18) 모두 비정규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채 경주시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한다. 2011년 2월말 현재 법적 투쟁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이다.

12) 민주노총 경주지부 조직부장은 2007년~2008년의 이랜드 투쟁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라 출두하지 않아 1년여에 걸친 수배생활에 들어간다.

여기에 발레오만도 투쟁패배의 여파, 새로 경주시장에 당선된 최양식 시장 역시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음[13]이 드러나면서 집행부와 조합원 모두 무기력감속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농성을 시작한지 531일만인 2010년 10월 24일 컨테이너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함으로써 경북일반노조 최장기 투쟁을 기록했던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은 허망하게 정리되고 만다.

Ⅳ. 투쟁 평가

1.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냈는가?

모든 투쟁도 그러하지만, 특히 경북일반노조의 조직화처럼 준비과정없이 급박하게 조직한 후 곧바로 투쟁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 더욱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다. 매번 경북일반노조의 장기투쟁에서 보여준 한계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된 투쟁이 아니라 집행부 및 지역이 대신해 주는 투쟁이었다는 평가를 반복해 왔었다.

그러나 경주재활용선별장 투쟁에 있어서도 이는 또다시 반복되었다. 나이가 많으니, 여성들이 대부분이니, 경험이 없으니... 등등의 이유로 모든 투쟁의 대부분을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조합원들은 그저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작은 사안이라도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고 그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채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끌어가는 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에게서 시도때도없이 “고맙고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라는 말이 그치지 않기도 하였다.

더구나 집행부에서 기획한 내용에 있어서도, 투쟁기간을 ‘노동자의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지 못한채 관성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투쟁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531일의 농성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된 조합원 교육이 과연 몇 번이나 실시되었는가를 보면 이는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투쟁이 장기화되고 어려워지면서 집행부조차 무기력속으로 빠져들며 아무런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성적 버티기 투쟁으로 일관하자, 조합원들 스스로가 이를 역동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투쟁 포기로 귀결되게 된 것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오류와 한계를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투쟁을 결정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조합원들과의 논의속에, 조합원들의 결정에 의해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이럴때 힘있는 투쟁이 가능하고 또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이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채워넣어 주고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이 투쟁과정을 통해 투사와 전사로 변화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투쟁의 주체는 집행부와 지역이 아니라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 재활용선별장 투쟁이었다.

---

13) 경주시는 최양식 신임시장 취임후에도 계속 시간을 끌더니, 2010년 10월들어 ‘경주시 민간위탁 시설에의 취업 알선’이라는 기막힌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다.

2. 민간위탁 철회라는 투쟁의 기조는 올바랐는가?

2009년 5월 8일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민간위탁 저지라는 투쟁기조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안이 통과되자 2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민간위탁 저지에서 민간위탁 철회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위탁 철회는 어려우니 민간위탁을 수용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견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2개월여가 지난후인 7월초부터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채 알아서 자신들이 설정한 기조와 판단하에 임하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경주시와의 교섭에 있어서조차... 이는 민주노총 경주지부 차원에서도 그러했고, 경북일반노조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러했다.

그리고 7월~9월의 3개월여 동안 이 문제는 지역차원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주장했든 그렇지 않고 주장했든, 현시기 민주노조운동내 비정규직 운동에 있어서의 주요한 쟁점인 “유연안정성인가? 비정규직 철폐운동인가?”와 맞닿아 있는 내용이었다. 즉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가운데 조금씩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왜곡된 것이기에 그에 맞서는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전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비정규 운동의 전망 및 관점과 관련된 것”[14]이었다.

소위 민간위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논리는 자본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투쟁이 패배한 후 일부에서 제기된 “무리하고 무모한 기조와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도, 생존권도 지키지 못했다”는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 “올바른 투쟁기조하에 임했으나 우리의 투쟁이 부족해 패배했다”는 교훈으로 올바르게 평가·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논쟁과 연계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재활용선별장 투쟁에서 보여진 관료주의·기회주의의 문제도 주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앞에서는 민간위탁 철회 투쟁! 투쟁!을 외치면서 경주시와는 민간위탁 수용을 전제하고 교섭에 임하는 모습, 이미 지역화된 투쟁을 더욱 상승·발전시키려 하기 보다는 적당한 형식적 투쟁으로 관리·통제하며 그 이상의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엄밀한 평가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3. 과연 민간위탁 철회투쟁을 전개했는가?

1년6개월여에 걸친 재활용선별장 투쟁기간동안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가 투쟁의 기조였던 ‘민간위탁 철회’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평가해 보면 경북일반노조도 그러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철회라는 요구와 주장이 재활용선별장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철회였는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차원에서 자행되는 사회공공성 후퇴를

14)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비정규직 없는 세상』중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김혜진) 25쪽~56쪽 참조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철회였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자였다면 투쟁의 내용은 단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투쟁을 계기로 공공기관인 경주시 차원에서 자행되었고 자행되고 있고 또 자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든 민간위탁의 문제로까지 영역을 확대시켰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경북일반노조와 민주노총 경주지부라는 노동계 차원의 투쟁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전 경주시민의 투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철회 투쟁은 사실상 '재활용선별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의 협소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철회'였지, 경주시의 민간위탁 전체 문제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경주시를 상대로 한 주요한 투쟁이었음에도 노동계만의 투쟁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일반노조도 그러하고 지역 노동계 차원에서도 재활용선별장 투쟁이 끝났다고 '민간위탁'의 문제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제 지역의 신자유주의 저지 사회공공성 확장 투쟁으로서 경주시의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향후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단지 노동계만의 요구와 투쟁이 아니라 경주지역 전체차원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4. 올바른 투쟁전술을 구사했는가?

경북일반노조에서는 경주시가 민간위탁안을 꺼내들었을때부터 쉽지않은 투쟁이 될 것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해 민간위탁을 저지·철회시켜 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러나 각오와 의지만으로 투쟁을 승리할 수는 없는 일. 시기시기마다 올바른 투쟁전술로서 투쟁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고비속에서의 투쟁전술 배치는 이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① 2009년 5월 8일 경주시청사를 에워싼 경찰버스의 차벽을 넘어 경주시의회 진입투쟁을 벌이면서 경찰의 무차별 폭력이 난무하고 경주시의회의 날치기 민간위탁안 통과과 있었음에도, 지역차원에서는 왜 곧바로 더 큰 지역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가?
② 또한 재활용선별장은 이미 합법적인 쟁의권까지 확보한 상태였음에도(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 5월 8일 이후 전면파업 등을 통한 재활용선별장 봉쇄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주시와의 교섭에 치중하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뒤따라가기 바빴는가?
③ 2009년 7월 28일부터 시작된 단식농성으로 사태해결은 어렵더라도 사태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던가, 이후 투쟁의 진전을 전제하고 단식을 중단하더라도 중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전제없이 그저 오래됐으니 중단하는 것으로 그쳤던가?
④ 2009년 6월~8월에 걸쳐 4차례나 금속노조 총파업과 연계한 지역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려 매번 1천5백여명을 전후한 대오가 결집했었는데도 한두번도 아니고 모두 걷기대회식으로 끝나고 말았어야 했는가?
⑤ 경북일반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지역동지들이 소수라도 더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쟁으로 나

아갔어야 했던 것 아닌가?

⑥ 2010년 들어 제대로 된 투쟁계획없이 그저 버티는 투쟁, 시간만 때우는 투쟁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상 조합원들의 투쟁포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었는가?

5. 지역연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전에 전개되었던 경북일반노조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장 투쟁에서 보여준 경주지역 동지들의 지원과 연대는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천막농성 유지·사수, 지원물품, 지역집회에 간부·조합원 결합, 투쟁기금 모금 등..... 이러한 내용들은 후퇴되어서는 안되고 더욱 상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경주지역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기 위해 몇가지 지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원청노조인 공무원노조경주지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은 경주시 소속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로서 경주시에는 정규직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원청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1차적으로는 해당 경북일반노조의 주체적인 투쟁이 기본이 되겠으나, 원청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속에서 특히 그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노조일 경우에는 원청노조의 역할은 다른 어떠한 '연대'보다 주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이를 2010년 11월~12월의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투쟁에서 확인한 바 있다. 경북일반노조만 보더라도 원청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동국대학교미화 투쟁시 이들은 反노동자적 작태(구사대 및 대체근로 등)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남겼었고, 원청노조가 같은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경상병원환자식당 투쟁에서는 적극적 지원으로 정규직화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 투쟁에서 보여준 원청노조인 공무원노조경주지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경북일반노조에서도 지역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할 것인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지역대책위 및 지역대표자회의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주요 투쟁이 발발했을때 '해당사업장+상급조직+지역조직'이 3위1체가 되어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어느하나가 배제되었을때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부분들이 결합함으로써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가면서 통일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투쟁에서는 그 이전 어떤 투쟁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결정하면 경북일반노조와 재활용선별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놀라운 압박이 가해져 오기도 하였다. 이는 역으로 경북일반노조와 재활용선별장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에서 결정되더라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지원·연대는 없다는 협박으로까지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북일반노조내에서는 실제로 '독자투쟁'에 대한 심각한 논의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 하겠다.

셋째는, 지역연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이제는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연대인지를 구분할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이다. 말 그대로 진정한 연대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면, 재활용선별장 투쟁의 경우 단지 재활용선별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로 보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연대라 할 수 있다. 엄혹한 일제시대에도 '문평제유'라는 한 사업장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기에 원산총파업이 가능했고, 또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대우어패럴'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기에 구로동맹파업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2010년 발레오만도 투쟁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재활용선별장 투쟁은 헌신적인 지역차원의 지원은 있었지만, 진정한 연대·진정한 연대총파업은 여전히 과제임을 던져주었다 하겠다.

Ⅴ. 마치며

재활용선별장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투쟁과 관련한 다음 4가지의 길을 자주 이야기한 바 있었다. "①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길이 최선이요, ②정정당당하게 싸웠지만 졌을때는 차선이요, ③비굴하게 이기는 것은 차악이요, ④비굴했음에도 졌을때는 최악"이라는 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하게 싸워나가자는 취지였다.
노동조합의 '노'자도, 투쟁의 '투'자도 모르던 재활용선별장 15명의 조합원들은 531일간 정정당당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고, 조합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조합원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조합원도 있다.

투쟁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문제는 투쟁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한 투쟁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투쟁이후에는 올바른 투쟁의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북일반노조 집행부도 또 경주지역 차원에서도 재활용선별장 투쟁 패배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그러나 잘못을 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며 반성과 극복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리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책임회피도, 또 아무런 평가도 없이 묻어버리는 것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반성하여, 경북일반노조도 지역민주노조운동도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본 평가(안)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